



# HISTOIRE DE BLEU

# HISTOIRE DE BLEU

Exhibition 12 May - 1 June 2017

---

OPERA GALLERY

Opera Gallery Seoul is prou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for Chae Sung-Pil - a Korean artist based in France, whose works often deal with the primitive essence under the subject of 'soil and the space of soil.' Chae is known as the artist of soil, and instead of using the soil as a simple medium, he intends to show the return to nature, the process of life, the momentariness and coincidental fate through the soil.

Chae, who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France, has come into the spotlight in France's art world through his constant inquiry into the fundamentals, expression of hope for the eternal 'purity' through the medium of 'soil' and in-depth representation of the beauty of oriental spaces with his unique philosophy.

For this exhibition, Chae presents a new, ambitious project - The History of Blue. Through his reflection on the colour 'blue' that was used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 from antiquity to present - to represent certain cultural meanings, he has built a 'new world of blue' based on the 'land of anonymity' he had created before. He also talks about the future of blue and art by suggesting a new blue that is 'supposed to exist' beyond the boundary of the 'existing' blue.

Through the 40 new works exhibited in Opera Gallery Seoul, the artist provides each viewer with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essence and memories contained in oneself. Furthermore, the viewers will be given an experience of coming close to the world of origin pursued in the 'land of anonymity' presented by the artist in his previous works that is now symbolised as the new blue of hope and freedom through various forms.

GEE CHAN KWON  
Chairman  
Opera Gallery Seoul

GILLES DYAN  
Founder and Chairman  
Opera Gallery Group

May 2017

‘흙과 흙의 공간’을 화두로 태고의 본질에 대해 다뤄온 재불작가 채성필의 국내 전시가 오페라갤러리 서울에서 펼쳐진다. 흙의 작가로 불리는 채성필 작가는 재료로서 흙을 사용하기 보다는 흙을 통해 자연으로의 귀환, 삶의 과정, 찰나의 순간, 우연적 운명을 보여주고자 한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는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변하지 않는 ‘순수’에 대한 희망을 ‘흙’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동양적 공간의 아름다움을 그의 철학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 프랑스 화단의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 채성필의 새롭고 의미심장한 기획 <블루의 역사>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에 사용된 ‘블루’라는 색의 문화사의 성찰을 통해 작가 채성필이 평소에 창조했던 익명의 땅, 블루의 세계를 재창조한다. 그리고 기존 블루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블루, ‘있는’ 블루를 넘어서 ‘있어야 하는’ 새로운 블루를 제안함으로써 블루와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오페라갤러리 서울에서 소개되는 40여점의 신작을 통해 작가는 감상자들에게 각자의 본질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기존 작업이 보여줬던 ‘익명의 땅’이 지향하는 시원(始原)과 근원(根源)의 세계가 희망과 자유의 다채로운 형상의 새로운 블루로 상징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권기찬  
오페라 갤러리 서울 회장

질 디앙  
오페라갤러리 창립자 및 회장

2017년 5월



Detail of *Histoire de bleu* (161221), page 41

## FERTILE SERENDIPITY

Behind some of the greatest discoveries or inventions in art lie some very ordinary domestic coincidences. Kandinsky and his famous upside-down portrait that led him to abstraction; Lee Miller accidentally opening the door to Man Ray's photography lab, thus creating an effect of 'solarisation' to the film being developed...

A similar thing happened to artist Chae Sung-Pil. While working on a tableau in their small Parisian apartment, his wife accidentally spilled a bowl of soup. The liquid spilled onto the canvas, leaving the mark of several delicate drops. "This is how I will paint", the artist thought. And the entire lifework of Chae Sung-Pil was thereafter built around this singular and subtle approach to the medium. Artistic skill rubbed shoulders with the accidental and unforeseen, like an event awaiting the association of a more thoughtful form of passivity.

The beauty of the serendipitous, the dance of myriads of elements, the evocative power of earth, the irrepressible feeling of nostalgia, vibrations of colour, a fascination for minutia, the love of poetry and calligraphy: all of this is at the root of Chae Sung-Pil's art.

The artist was born and raised on a small island in Korea, in a place where nature was preserved and children played carefree... A joyous and untroubled life that included a caring grandfather who initiated the boy in the art of poetry and calligraphy... A large family: the artist is the youngest of eight children. His mother made sure life at home was peaceful, her nightly prayers

invoking the moon: "May peace and harmony reign in our family"; a bowl of water left as an o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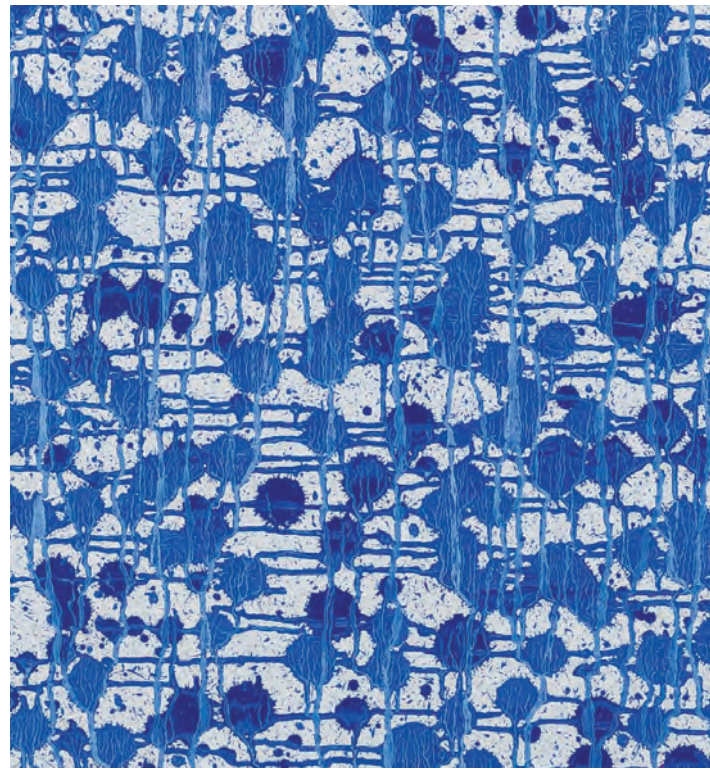
As a teenager, Sung-Pil went off to study Fine Arts in Seoul. Upon arrival, he discovered a sprawling metropolis. The young and sophisticated peers he mixed with constantly reminded him of his rural roots; this is where the artist started practicing a form of retreat and solitude and where h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keeping in touch with earth, a deep relationship with nature that guides him to this day in his most important life decisions.

As for art, Chae Sung-Pil relies on a Taoist vision of nature and its five elements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These five changing (mutable) elements, perceived like various phases of transitional stages of a process of mutual conceiving.

Sung-Pil has written on this very subject: "*I give the eye the opportunity to perceive landscapes (matérialisme) based on a poetic, pictorial analogy of the way nature itself conceives*". But also: "*Earth and water create a space-source which, from a visual perspective, gives birth to land, landscapes; a field of essential riches*".

The space of the canvas: four sides, four cardinal points.

Two different time periods merge: the longstanding time of nature, geology and sedimentation; the swiftness of painting a tableau.



Detail of *Histoire de bleu* (170113), page 69

The easel is the wood; the ink or binder is the water; the colour is the fire and the finely crushed clay is the earth; the silver hue or pearly power symbolizes metal.

His art is both figurative and abstract, metaphorical and literal: Sung-Pil paints "the earth" with soil he has gathered himself, before finely crushing it and mixing with a binder and pigments. This is also what lends his paintings such an ethereal aspect: the matter is sublimated, obliterated. No impasto here, no muddy or opaque surfaces like with other *matérialisme* painters.

And don't forget the light, attracted to the canvas thanks to the many silver reflections of powdered pearl used as the foundation of the artist's compositions.

A series of blue tableaux. The colour of the sky or a water matrix.

Sung-Pil never paints swaths of colour, nor does he use a traditional easel, but rather several inclined canvases so that his paintings can unfold slowly, in an almost controlled manner.

The artist: he is the one who accompanies, who offers and guides but who never completes. Only nature completes things. As such, the verb "to paint", for Chae Sung-Pil, is not conjugat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 paint, you paint, he paints", etc... but rather as a reflexive verb "I paint myself". The tableau "paints itself". This is no artist's escapism but rather the very waiver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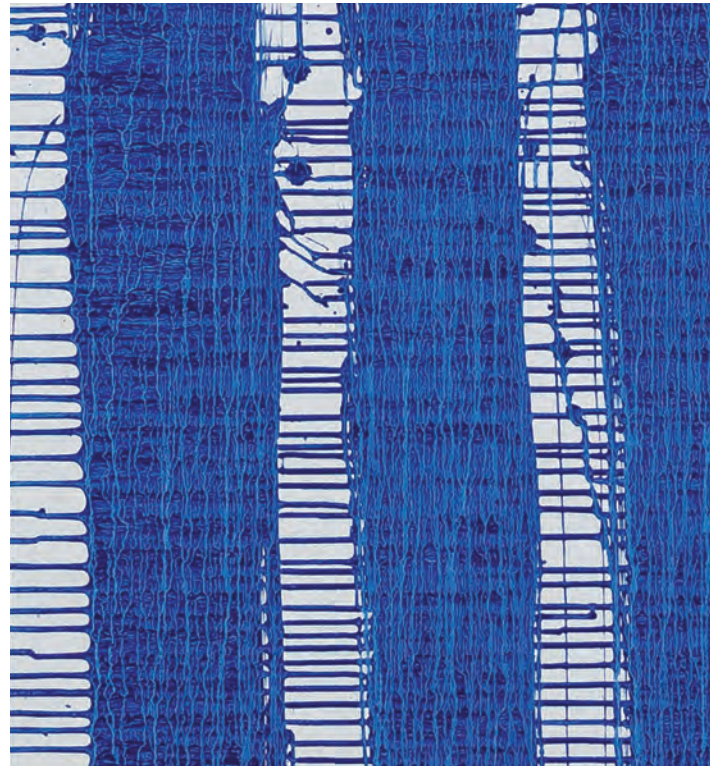
artist's privilege; more like a conscience than something that's accomplished through him and his materials.

Sometimes Chae Sung-Pil's paintings ripple like an agitated sea or like leaves floating in the wind; sometimes they flow in delicate streams of dusty soil during a sudden storm. We're reminded of fields, a lock of hair, an ocean bed, a forest or desert... All is wide open. The materials run free while powerful strokes, recurring themes and patters repeatedly suggest a specific intent, a conscience behind the art.

Contemplative.

In his heart, Sung-Pil roams the earth, the matrix, the material vestiges of his childhood. Through his work, the artist seeks the perfect stroke, fertile serendipity.

DAVID ROSENBERG  
Beirut, March 2017



Detail of *Histoire de bleu* (161222), page 43

## 창조적 우연

예술사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은 단순한 일상의 실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칸딘스키의 거꾸로 걸린 작품은 추상미술을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고, 리 밀러가 작업 중이던 만 레이의 스튜디오 문을 열게 된 사고는 사진기법에 있어서 현상 중이던 사진의 강광에 « 반전 » 효과를 만들어 준 혁신적 발견이 되었다.

채성필의 작업에 일어난 일도 이와 유사하다. 유학초기 작은 아파트에 지내던 시절, 작업할 공간을 찾아 부엌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실수로 그가 작업하던 캔버스에 국물을 쏟았다. 쏟아진 국물은 정리를 위해 세워진 캔버스에 흐름이라는 아름다운 흔적과 자국을 그려냈으며, 그는 이 일상의 작은 실수가 남긴 자국을 통해 미적 전환을 생각했다. 그 이후, 채성필은 특이하고도 섬세한 작업방식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의 작업활동은 우연과 예측불가능성을 동반하고, 성찰적 수동성을 이용하며, 조율이 가능한 창조적 우연으로 발전된다.

우연의 아름다움, 재료의 춤, 흙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능력, 억누를 수 없는 향수, 색상의 진동, 미세한 디테일에 대한 매력, 시와 서예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채성필의 예술의 원천이 된다.

채성필은 진도라는 섬에서 태어나 자랐다.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유년시절의 충만한 놀이와 서정적 안식의 공간. 그는 즐겁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할아버지로부터 시, 서, 화를 배웠으며,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매일 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는 달빛에 정화수를 마주하며 « 가정에 평화와 조화가 있기를 »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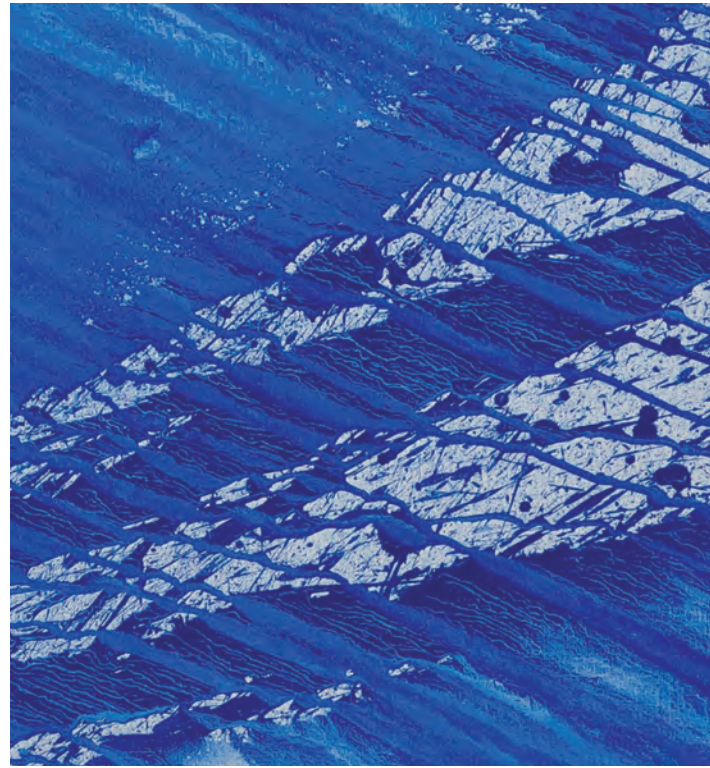
청소년기에 채성필은 서울로 이사를 가며 대도시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춘기 소년은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과 소외감을 느꼈으며,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숨막히는 소란함과 찌든 공해 속에서 소년기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슴에 새긴다. 이 시기 그는 향수와 함께 흙과 대지,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

그의 예술관은 자연의 5가지 원소 (불, 물, 나무, 쇠, 흙), 이 근원적 원소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즉, 근원적 공간에 대한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5가지 원소를 늘 변화의 중간 단계에 있으며, 서로 상극 상생하는 무한한 창조적 상태로 보고 있다.

채성필은 이에 대해, « 스스로 그러하게 하는 것, 과정으로써의 창작(poietique), 즉,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또한, « 내 작업의 재료인 흙과 물을 포함한 5원소가 만들어내는 공간(그림)은 우리에게 시적 상상력을 통해 태초의 모습을 지닌 자연-근원적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고 말한다.

그에게 캔버스의 공간은 4개의 면과 4개의 방위, 그리고,, 바람의 장비이다. 이중적 시간의 교차!. 자연과 대지, 퇴적의 오랜 시간, 그리고 예술가의 짧은 움직임.

캔버스는 나무, 작품이 완성되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물, 곱게 정제된 진흙은 흙, 바닥의 은색 또는 진주가루는 철, 그리고 먹은 불의 기운을 상징한다.



Detail of *Histoire de bleu* (170104), page 61

구상적이자 추상적이며, 직설적이자 비유적이다. 채성필은 여행을 통해 직접 흙을 수집하고 여기에 흙에서 온 천연물감을 혼합해 풀로 만든 붓으로 « 대지 »를 그려낸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모방된 자연의 모습은 없다. 이것이 그의 작품들이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이다. 재료는 이상화되고 흠어진다. 마티에르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끈적거리는 질감이나, 진흙, 두꺼운 도료는 없다. 그것은 그에게 재료가 되는 흙이 곧 땅이라는 공간이 되고, 이 땅이 곧 그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진주 분의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 그 땅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그의 푸른 캔버스는 하늘이며 바다이고, 또, 역사이다.

채성필은 작업할 때 이젤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지 않고, 바닥의 수평과 세워진 캔버스를 회전해가며 시간과 안료의 흐름을 동시에 사용한다. 재료를 천천히 흘러내리기 위해 물리적 경사 면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따르는 창작자의 순행의 과정이다.

예술가는 동행자이자, 제공자이자, 인도자이지만 마무리 짓는 귀결자는 아니다. 마무리는 자연이 짓는다. 채성필에게 «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는 재귀동사이다. 그림이 스스로 그려지게 하는 것이다. 화가가 자신의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료와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때로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이 넘실대거나 바람 속 나뭇잎처럼 흔들린다. 때로는 갑작스런 소나기를 맞는 먼지밭처럼 흙내를 일으키다 이내 흘러내린다. 대지와 머릿결, 바닷속, 숲, 사막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는 이에게 맡겨둔다. 재료는 자유롭게 펼쳐지지만 반복되는 선, 주제, 패턴은 의도와 주체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나는 « 창조적 우연 »이라 부른다.

관조적인 내밀함이어.

그의 가슴 속에는 흙과 근원, 유년 시절의 추억이. 그의 작업에는 적절한 움직임의 통해 만들어지는 창조적 우연. 즉, 자연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DAVID ROSENBERG  
2017년 3월, 베이루트





## THE SYMPHONY OF BLUE

CHAE SUNG-PIL  
*THE HISTORY OF BLUE*

### 1. THE PROJECT OF 'THE MIRROR' AND 'THE LAMP,' *THE HISTORY OF BLUE.*

Art is a mirror that reflects 'the world's reality as it is.' At the same time, it is a lamp that sheds light on 'the ideal reality that is supposed to exist.' Both of these roles attributed to art - the mirror and the lamp - are inextricably linked to each other: when art reveals the mere brutality and emptiness of the existing reality, the audience goes beyond the tough surface and somehow senses an underlying ideal within the artwork itself; and when art depicts an ideal world of flawless purity, the audience reads the artist's message behind his placid work, fiercely criticising reality as it is. Accordingly, the role of art sails back and forth over a line drawn between the mirror and the lamp. The audience stands on this borderline, contemplating and fathoming the essence of the human, the life, and the reality.

Chae Sung-Pil, the artist of the border, freely navigates both sides of the borderlines separating East and West,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absoluteness and expression. This time, he conceived a new, ambitious project - *The History of Blue*. Chae reflects on the present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history of the colour "blue." He creates the future of blue in art by going beyond the boundary of conventional blue and presenting a new blue meant to integrate our reality.

### 2. THE LAND OF REALITY AND IDEALS, 'THE LAND OF ANONYMITY'

Chae's canvases materialise the ideal world that should legitimately exist in reality. He creates an original and primitive world based on the five basic elements of the human being and the world - fire (火), water (水), wood (木), metal (金), and earth (土). Earth and water naturally flow on the canvas, its background covered with silver powders, which represents metal and fire. In the midst of this flow, the strokes of the sorghum brush (wood, 木) that he makes himself create the firmament and the landscape. Earth (土), the very foundation of civilisation, is represented by soil collected from his ideal spaces - including his motherland - then filtered and refined. Mixed with pigments, soil turns into colours that are loaded with his spirit and passion. Water (水), which gives life to all creation, crystallises human civilisations while constructing a world that flows naturally on the canvas alongside a 'silver' light of purity.

Chae's world is not created by a one and only creator with absolute power. He waits for the material to 'spontaneously' spill down over the canvas and harden so that it can create an original world by itself. And then his sorghum brush, metonymy for wood and nature itself, completes the ideal and primitive world. Even though the pain coming out of his journey towards the origin and realistic restraints occasionally comes through in his works, all of his creations not only pursue the essence and ideal of nature itself, they also reveal it. They expand its territory beyond the will and thoughts of the artist.

The world created on Chae's canvas is hence exquisitely beautiful and peaceful, yet still in harmony with creative tension and motion.

The archaic nature and the world materialised in his work are 'The Land of Anonymity.' 'The Land of Anonymity' is home to all of us. Through his work, we experience the ideal world that 'is supposed to exist' in this 'existing' reality. We realise that the ideal world is our own and we peacefully decide to remain in it. Chae's art is just as visual as auditory. Most of his artworks have their voice and echo. We sense the resonance in each of them, both visually and physically. Then we can communicate with art. All of us then realise that we are the owners of a world newly created through listening and dialogue. We soar up to the 'supposed-to-exist' world that materialises on the canvas.

### 3. BEYOND THE POLITICS OF HUES

Politics of hues use colours to create the dichotomies between civilisation and barbarism, high (上) and low (下), sanctity (聖) and mundanity (俗), greatness (貴) and shallowness (賤). Historically, the colour has been used as a symbol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deology. Blue is the most representative, symbolic colour that was used for political dynamics. The ancient Celts, from the southeast area of Germany, are known for their belligerence. They invaded and subdued Britannia, Rome and even Anatolia. Celt warriors painted their face blue before fighting, as the colour was regarded as a source of power. But the Celts lost their dominance

after they surrendered to Caesar in the first century B.C. Nevertheless, the blue of Celt warriors, alongside with green, remained stigmatised in the Roman Empire as colours of barbarians, fear and threat. Blue went through continuous transformation in its interpretations -- from the colour of sanctity in Marianism, to the colour of asceticism during the Reformation, from the colour of freedom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colour of love in Goethe's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and finally a popular colour thanks to the blue jeans manufacturers.

In Chae's work, the world of conventional blue gives way to a new world of blue. The various blues embodying these dichotomous ideologies seem to be carrying the previous world away in a funeral bier. The vacancy is then filled by a new world of blue that may have existed since ancient times and is now revealing its true self -- much more intense and powerful than its predecessor. Chae's *The History of Blue* embodies division, exclusion, healing and coexistence, through new and various formative expressions. The history of imperialism has been about taking away others' territory, dividing and ruling over their land on their behalf. Natives underwent oppression and exile, threatened on their homeland, taken as slaves and prisoners. Blue not only represents the history of empires but also of the native people. For them, blue stands for as the bruises of torture as well as their hope for a better future. The new blue allows the victims of conventional blue to consider reinstatement. Each petal forms a wholeness, as they dream of 'the old future.' They do not merely dream about a beautiful, new land of hope

but to win back the pre-existing land of life. The future, the past and the present coexist within a single world.

Chae's new artworks fathom the flow of history through a single colour, "blue," which has been used in the art history since ancient times and up to the present days. In most cases, artworks have been tested and consumed by reality and society. As such, colour, one of the crucial components in painting, was chosen and used not by the artists' subjective taste, characteristics, or preference but by the authorities, who were both the producers and the consumers of art for a long time, in an implicit or explicit manner. Likewise, the history of blue also fluctuates when encountering turbulence in the world's historical flow -- such as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ancient empires, the dominance of Christianity or religious Reformation, to name a few. In other words, it was not about the intrinsic nature or the meaning of the hue itself, but rather about the historical perspective under which blue was used: from the colour of barbarism and violence to the colour of sanctity and abstinence. Chae Sung-Pil tries to reproduce the 'supposed-to-exist' history in the 'existing' and 'objectively definite' history of blue through addition and subtraction. Accordingly, the gap between 'the existing mirror' and 'the supposed-to-exist lamp' closes and become extinct, letting reality and ideals coexist and cohabit.

### 4. BALANCE AND COEXISTENCE, 'THE LAND OF BLUE'

Chae's *History of Blue* is like a cultural history told through painting rather than by language. Historians

of Postmodernism have highlighted cultural history as a valuable methodology for historical research, instead of political history which focuses on kings and heroes. This approach rewrites and rediscovers the history of the whole as it tears apart the dichotomy between self and others; it reinstates otherness, neglected by traditional historians. Just like Postmodern history reads the whole history of humankind through a cultural perspective, Chae's work also paves a new way beyond the history of hue, with a profound insight.

Chae's reflection on the 'pre-existing' history of blue rules out any regression to the gloomy history of the past. Rather, it pushes forward with an ideal and righteous history of blue. The fifty-five series of *The History of Blue* dismantles the dichotomies spanning cultural history as read by Postmodernists. Regardless of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the artist recreates a new world of blue, 'the Land of Anonymity,' in the place where the pre-existing primitive blue once was and went. Chae's *The History of Blue* is an anonymous land for blue only, which is historical and trans-historical at the same time. There, each of us may reside in harmony. Through his previous artworks, we could foresee the primitive and original world that 'the Land of Anonymity' pursues. In Chae's new series, the world is being stated under new and diverse forms of blue, a symbol of hope and freedom.

HAESUNG, CHUNG  
Seoul, March 2017

## 블루의 교향악

- 채성필 <블루의 역사>



### 1. 거울과 등불' 의 기획, <블루의 역사>

예술 작품은 '있는 현실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동시에 '있어야 하는 이상적 현실'을 현시하는 '등불'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울'과 '등불'이라는 예술의 역할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있는 현실'의 잔혹함과 무의미함을 고발만 하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독자는 그 속에서 반대향인 이상적 현실을 전망한다. 상처 하나 없어 보이는 순백의 이상향이 제시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독자는 그 이면에 현실 비판의 절제된 메시지를 읽어 낸다. 따라서 하나의 예술 작품의 역할속에서 '거울'과 '등불'의 경계선은 사실상 불명확하다. 독자는 그 경계선에 서서 사람과 인생 그리고 현실을 성찰하고 전망한다.

동양/서양, 구상/추상, 절대/표현의 경계에서 양면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경계의 작가 채성필은 <블루의 역사>라는 야심찬 기획을 새로이 구상한다. 채성필은 '블루'라는 색의 문화사를 통해 제현되는 세계의 모습을 성찰한다. 그리고 기존 블루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블루, '있는' 블루를 넘어서 '있어야 하는' 새로운 블루를 제안함으로써 블루와 예술의 미래를 선취한다.

### 2. 현실과 이상의 땅, <익명의 땅>

채성필의 화폭엔 '있어야 하는' 이상적 세계가 구현되어 있다. 채성필은 인간과 세계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근원인 오행(五行)의 요소를 담아 캔버스위에 근원적이고 시원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화수목금토', 은색가루(金, 火)를 칠한 은빛바탕 캔버스위에 흙(土)과 물(水)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 흐름에 작가 스스로 제작한 수수뿔(木)을 통해 천지를 창조해 간다. 어머니의

나라인 고향 등 작가 내면의 이상적 공간에서 가져온, 운명의 근원적 요소인 흙을 다듬고 손질한다. 여기에 안료를 혼합하여 자신의 혼과 정념을 더한 색을 만들어 낸다.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물'은 인류 운명의 결정체인 동시에 순백의 '빛'인 '은'과 함께 캔버스위에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면서 세계를 형성한다. 작가 채성필의 세계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다. 그는 근원적 요소인 화, 수, 금, 토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 내리고 굳어서 하나의 원형적 세계를 스스로 이루어 내길 기다린다. 그리고 작가는 자연 그 자체인 '목'의 수수뿔을 통해 이상적이고 근원적인 세계를 완성해 간다. 때론 근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속의 고뇌와 현실적 제약이 부분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의지와 생각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의 근원과 이상을 지향하고 현시한다. 채성필의 화폭속에 창조된 세계는 그래서 시원의 역동성과 창조속의 긴장감속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롭다.

채성필의 작품속에서 형상화된 태고적 자연과 세계는 '익명의 땅'이다. '익명의 땅'은 그 누구의 세계도 아니기에 우리 모두의 세계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있는' 현실속에서 '있어야 하는' 이상적 세계를 경험한다. 그 이상적 세계가 바로 자신의 세계임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머문다. 작가 채성필의 작품들은 시각적인 동시에 청각적이다. 그의 작품들은 대다수 각각 작품 고유의 울림이 있다. 우리는 작가가 아닌 작품이 말하는 다양한 울림을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감지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우리 모두는 '머뭇'과 '대화'를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작품속에 구현된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있는' 현실속에서 작가 채성필의 화폭에 구현된 세계, '있어야 하는' 세계로 비상한다.

### 3. 색의 정치학을 넘어서

색의 정치학은 색을 통해 문명/야만, 상/하(上/下), 성/속(聖/俗), 귀/천(貴/賤)의 이분법을 확립한다. 역사적으로 색은 정치·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기호로 활용되어 왔다. ‘블루’는 색을 정치 역학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색채이다. 독일 남동부에 원주하던 고대의 켈트족은 기원적 6세기에서 3세기에 브리타니아와 로마, 심지어 소아시아를 침공하여 그들을 지배한 호전적인 민족이었다. 켈트족 전사들은 전투시 얼굴에 힘의 원천인 푸른색을 칠했다. 기원적 1세기 카이사르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켈트족은 지배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로마에게 켈트 전사의 푸른색은 초록색과 함께 야만과 공포, 위협의 색으로 배척된다. 그러나 이후 푸른색은 성모 순배에 의해 성의 색으로, 종교 개혁에 의해 금욕의 색, 산업 발달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자유의 색,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의해 사랑의 색 그리고 청바지 제조사 등에 의해 모두의 색으로 확대되는 등 테제와 안티테제를 반복하면서 오늘날의 블루가 지니는 위상을 확립한다.

채성필의 작품에서는 기존 블루의 세계가 떠나가고, 새로운 블루의 세계가 도래한다.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기존 블루의 세계를 짚어진 수많은 블루들은 이전의 세계를 마치 상여를 짚어진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어디론가 떠나는 듯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태고적부터 존재해왔고 보다 강렬하고 강력한 새로운 블루의 세계가 이미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의 역사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타인의 영토를 갈취하였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 분할 통치한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유배당한 노예와 죄수로 억압당한다.

다. 블루는 제국의 역사인 동시에 원주민의 역사이다. 원주민들에게 블루는 고통당한 흔적의 피멍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깔이었다. 기존의 블루에 의해 억압당한 타자들은 새로운 블루를 통해 귀환을 시도한다. 꽃잎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형성하고, 이들은 ‘오래된 미래’를 꿈꾼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희망의 새 땅 그러나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생명의 땅의 탈환을 꿈꾼다.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는 하나의 세계속에 연결하여 공존한다. 작가 채성필은 새롭고 다양한 조형적인 표현을 통해 분할과 배제 그리고 치유와 공존이라는 <블루의 역사>를 기술해 간다.

작가 채성필의 새롭고 의미심장한 기획 <블루의 역사>는 미술사에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블루’라는 단 하나의 색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성찰한다. 예술 작품들은 대다수 현실과 사회속에서 제시되었고, 소비되어 왔다. 회화의 중요한 요소인 색채 또한 예술가의 주제적 취향과 개성과 기호에 의해 선택되고 사용되어 왔다가보다는, 오랜 세월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한 권력자들에 의해 때론 암묵적으로 때론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다. 고대 제국의 영토확장과 기독교의 지배 및 종교 개혁 등의 세계사의 흐름이 격변할 때 ‘블루의 역사’ 또한 요동친다. 즉 ‘블루’는 색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본성과 의미가 아닌 세계사의 흐름에 의해 때론 야만과 폭력의 빛깔로, 때론 가장 성스럽고, 때론 금욕적인 빛깔로 규정되어 사용된다. 작가 채성필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진, ‘있는’ 역사인 ‘블루의 역사’에 ‘더하고 빼기’를 통해 ‘있어야 하는’ 역사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블루의 역사, + & ->속에는 ‘있는 거울’로서의 블루의 역사와 ‘있어야 하는 등불’로서의 블루의 역사 사이의 경계와 간극이 소멸하여 현실과 이상이 함께 공존한다.

### 4.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블루의 땅

채성필의 <블루의 역사>는 언어가 아닌 회화로 된 일종의 문화사이다. 포스트모던 사관에서는 왕과 영웅 중심의 사관인 정치사 대신 정치사의 타자인 문화사를 역사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주체/타자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기존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타자를 복원함으로써 전체의 역사를 재기술하고 재조명한다. 포스트모던 사학에서 문화사는 단순히 문화사를 넘어서 인간과 세계의 전체사를 조망했듯이, 채성필의 블루의 역사 역시 단순히 색의 역사를 넘어서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통찰한다.

채성필의 <블루의 역사>는 원래부터 ‘있던’ ‘블루의 역사’를 성찰한 결과, 암울한 과거사를 지양한다. 나아가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블루의 역사를 제안한다. 이 작업을 통해 55점의 연작으로 기술된 채성필의 <블루의 역사>는 포스트 모던 사관의 문화사가 지향했던 바인 문명/야만, 상/하(上/下), 성/속(聖/俗), 귀/천(貴/賤)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해 관계를 떠나 이미 존재한 시원의 블루가 있어야만 했던 그 자리에 작가 채성필이 평소에 창조했던 익명의 땅, 블루의 세계를 재창조한다. 채성필의 <블루의 역사>는 역사적이지만 역사를 초월한, 블루만의 익명의 땅이다.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공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의 기존 작업이 보여줬던 ‘익명의 땅’이 지향하는 시원과 근원의 세계가 새롭게 다채로운 형상의 블루로 변주되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작가 채성필의 개별적인 작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와 공존을 이룬 화성으로 눈부신 교향악을 연주한다. 그의 다성적인 울림속에 우리 개개인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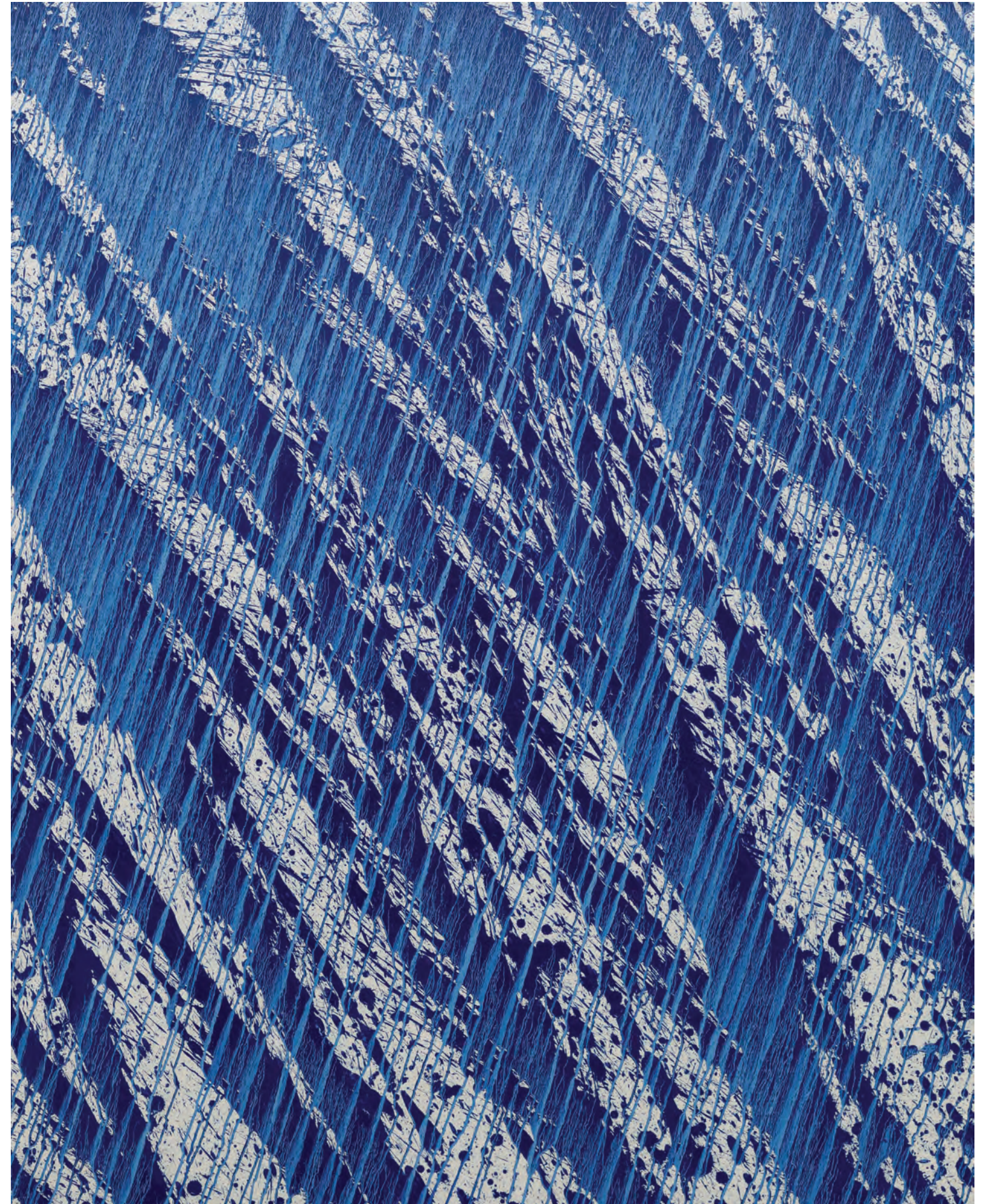
그 땅의 새로운 주인임을 자각하기를, 새로운 블루가 상징하는 희망과 자유의 땅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지길 소망한다.

정 해 성  
(작가, 문화평론가)  
2017. 3.

Histoire de bleu (161101)  
블루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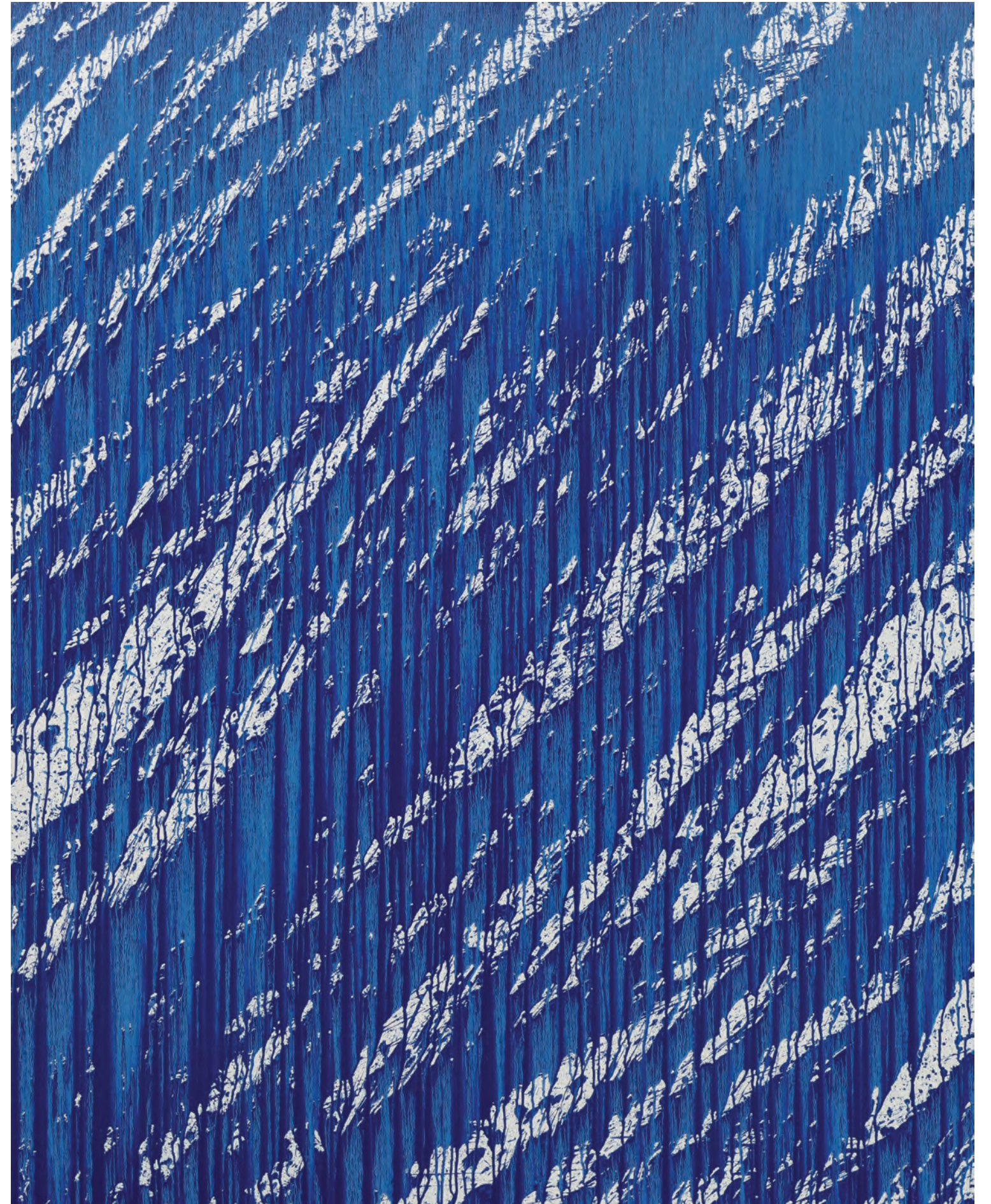
2016

200 x 160 cm - 78.7 x 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61102)  
블루의 역사  
2016

200 x 160 cm - 78.7 x 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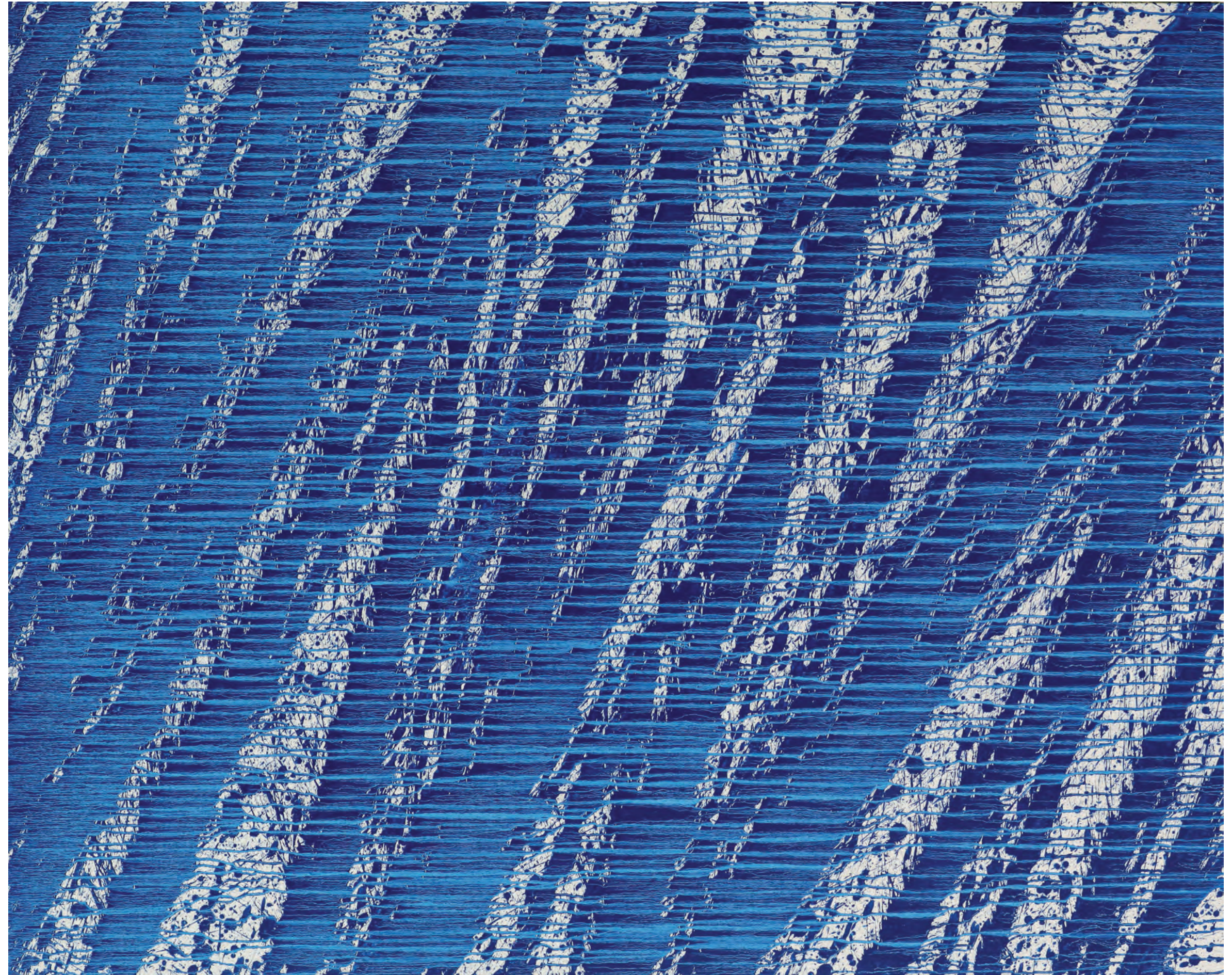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61103)  
블루의 역사  
2016

200 x 160 cm - 78.7 x 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61104)  
블루의 역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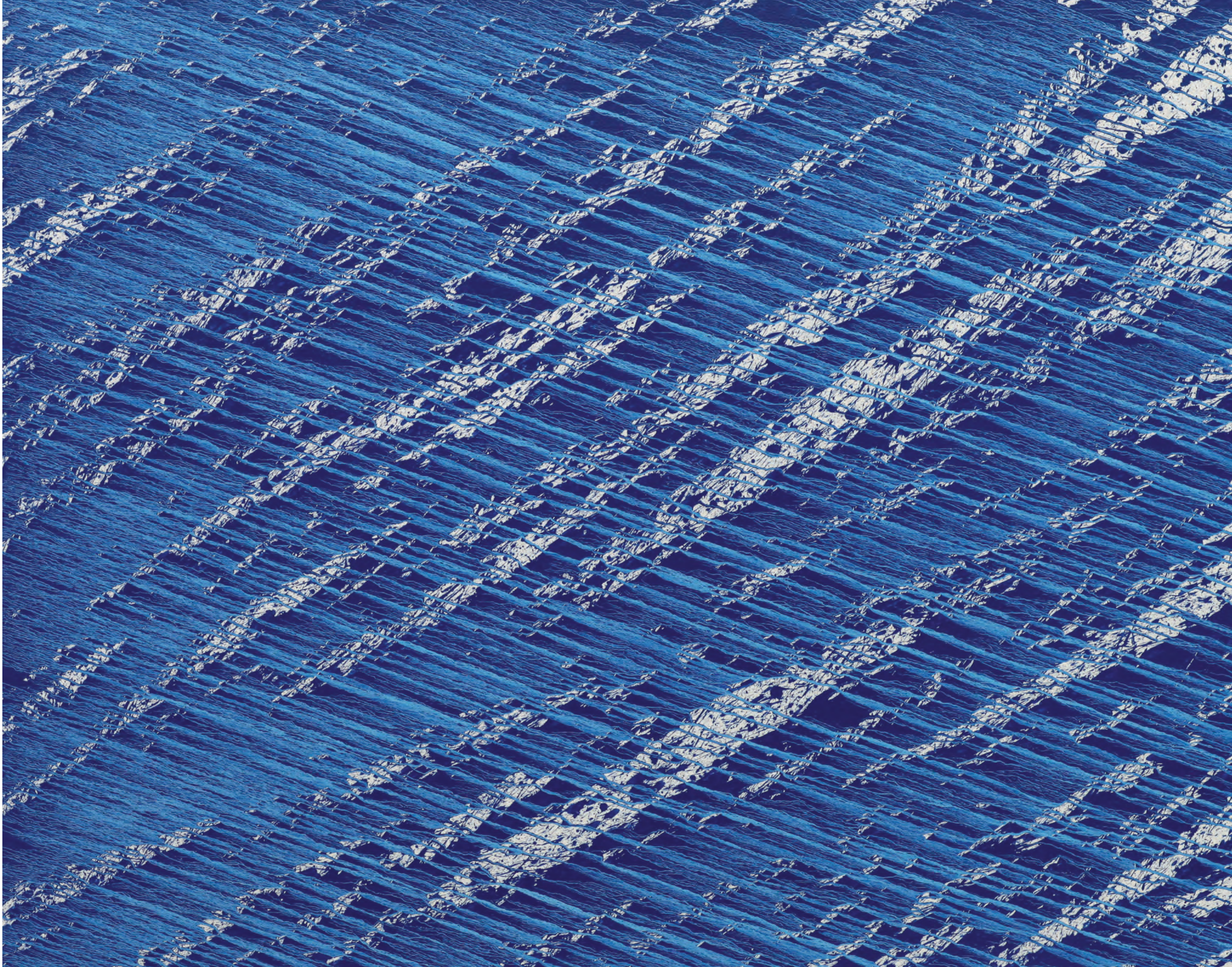
160 x 200 cm - 63 x 78.7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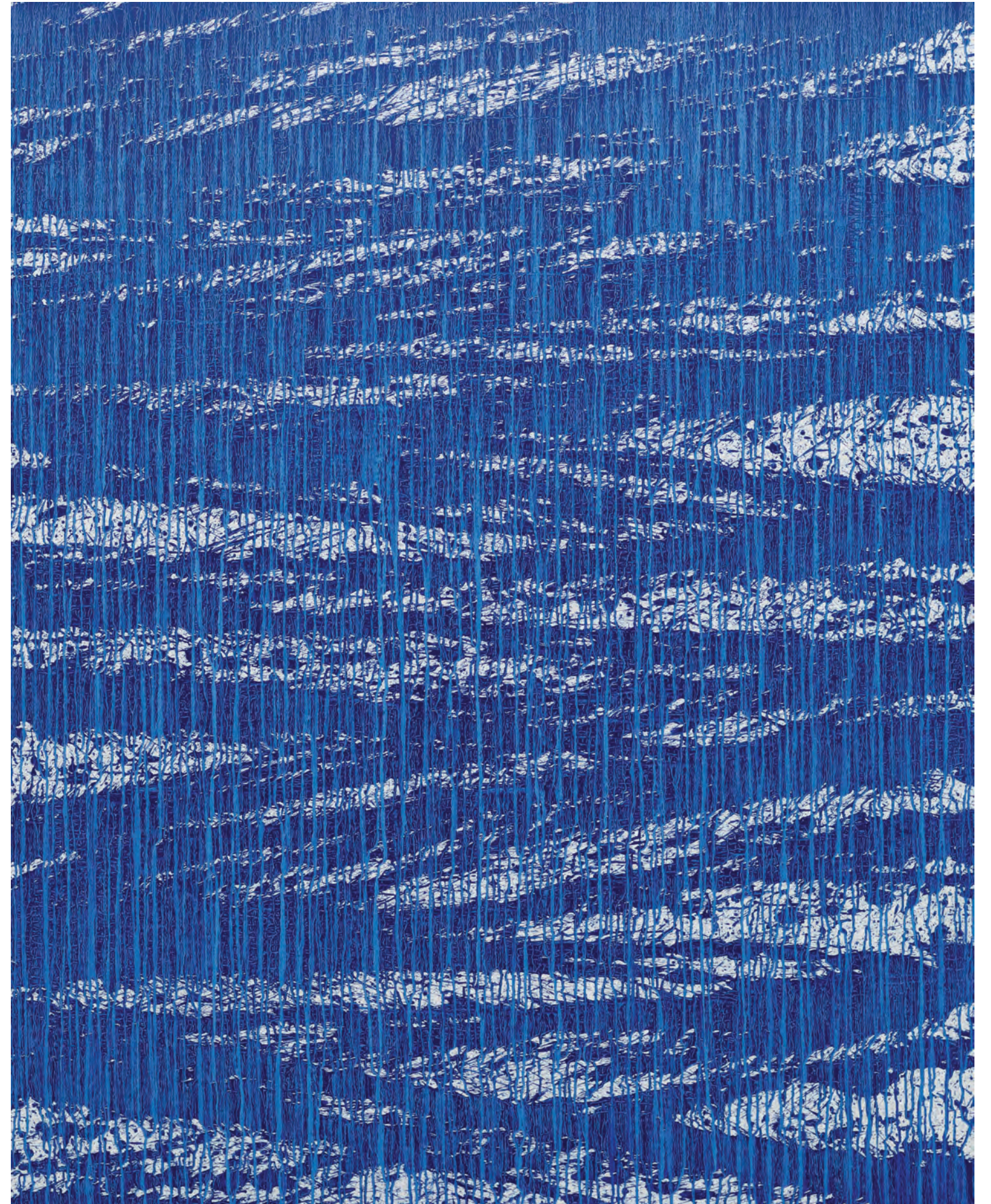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61105)  
블루의 역사  
2016

160 x 200 cm - 63 x 78.7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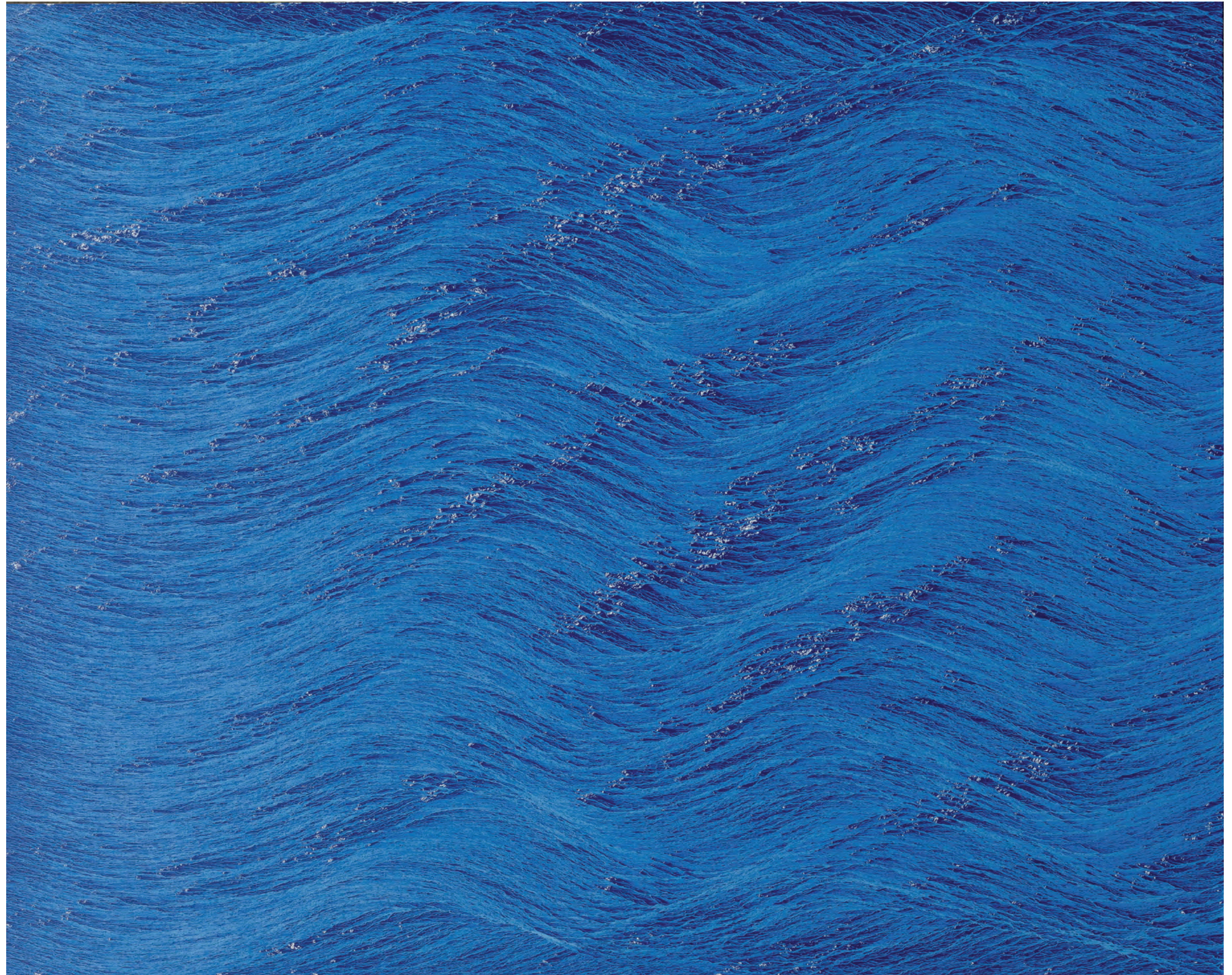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61106)  
블루의 역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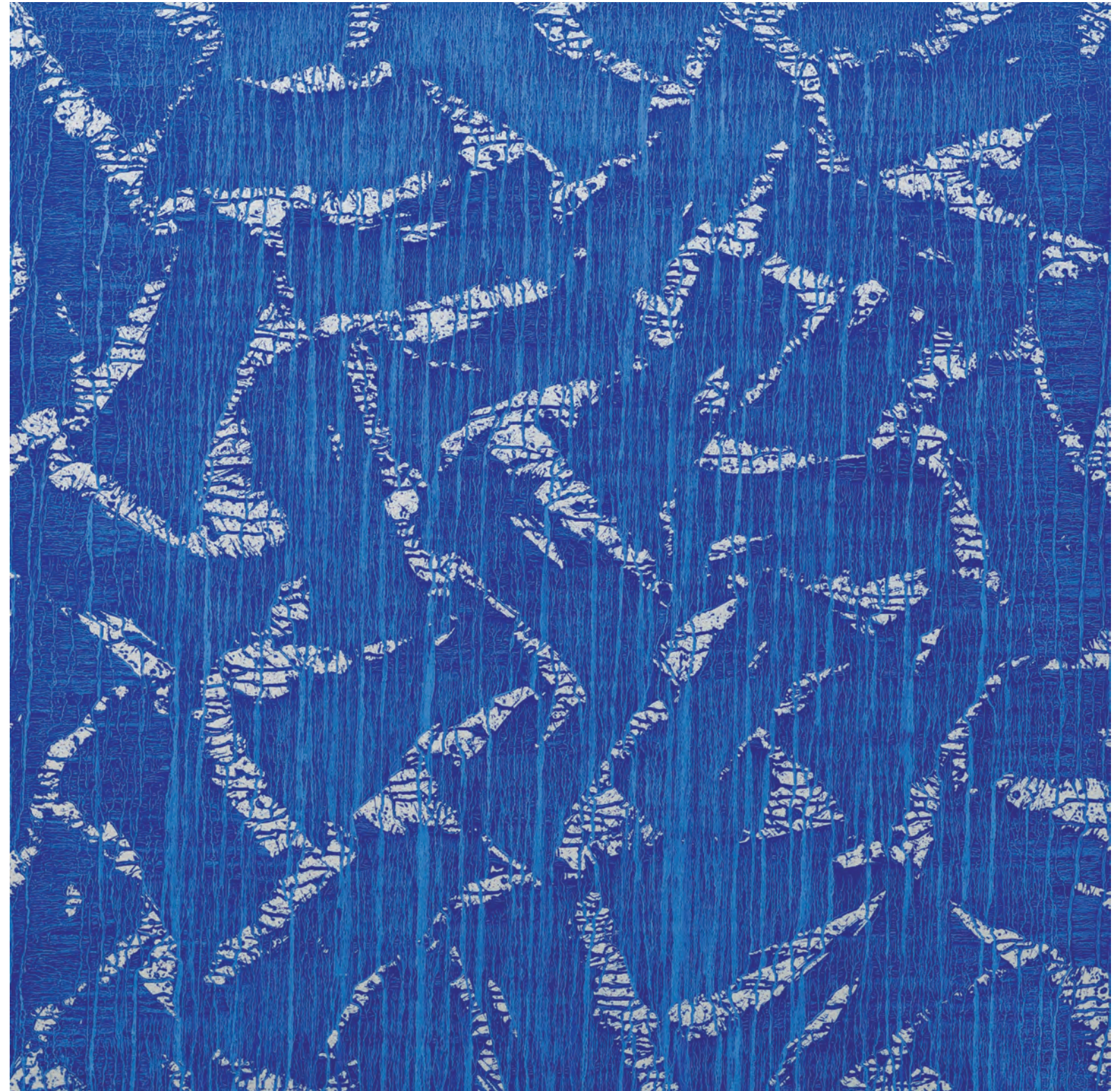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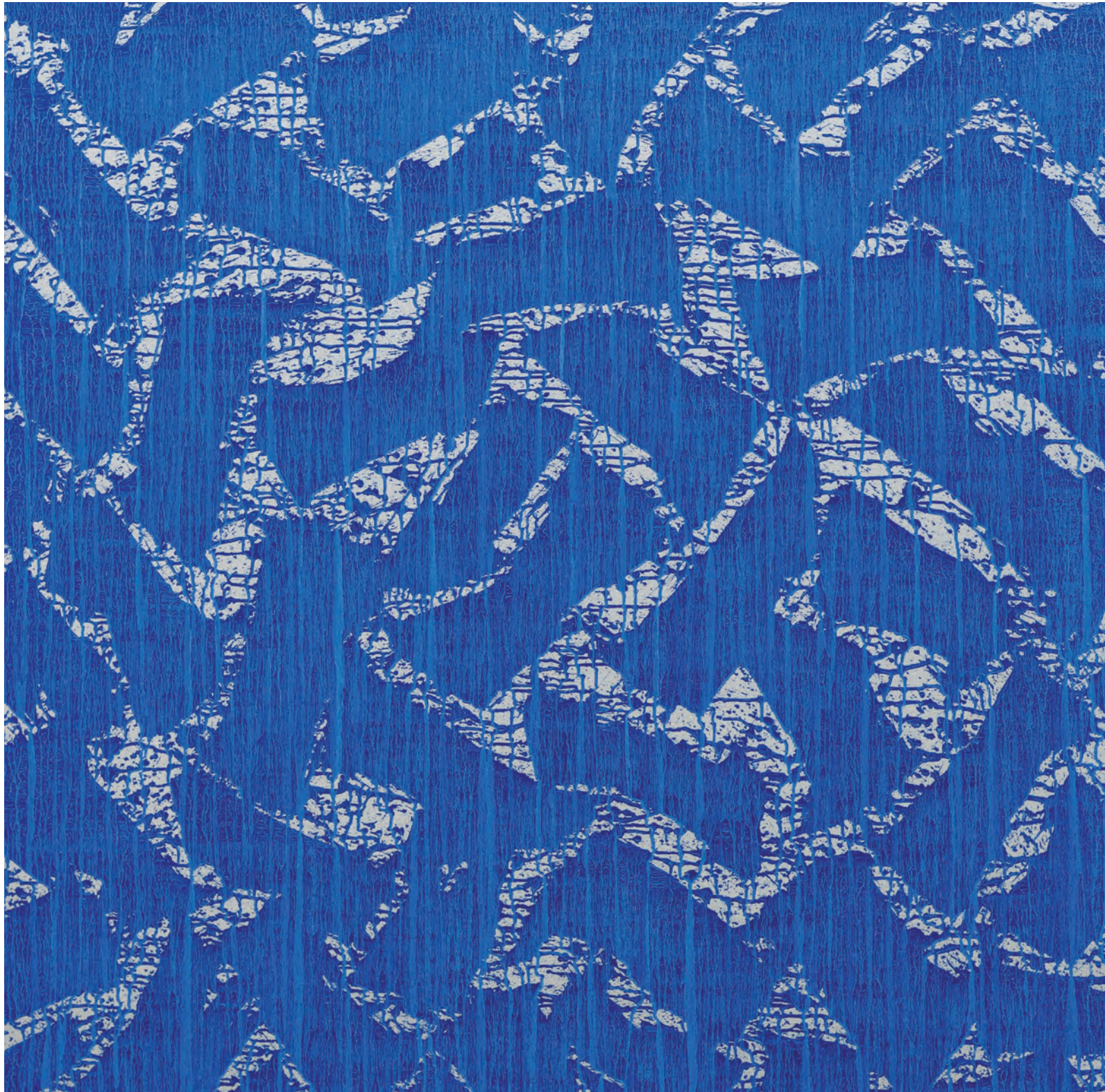
200 x 160 cm - 78.7 x 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61107)  
블루의 역사  
2016

160 x 200 cm - 63 x 78.7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LEFT

Histoire de bleu (161012)  
블루의 역사

2016

130 x 130 cm - 51.2 x 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RIGHT

Histoire de bleu (161015)  
블루의 역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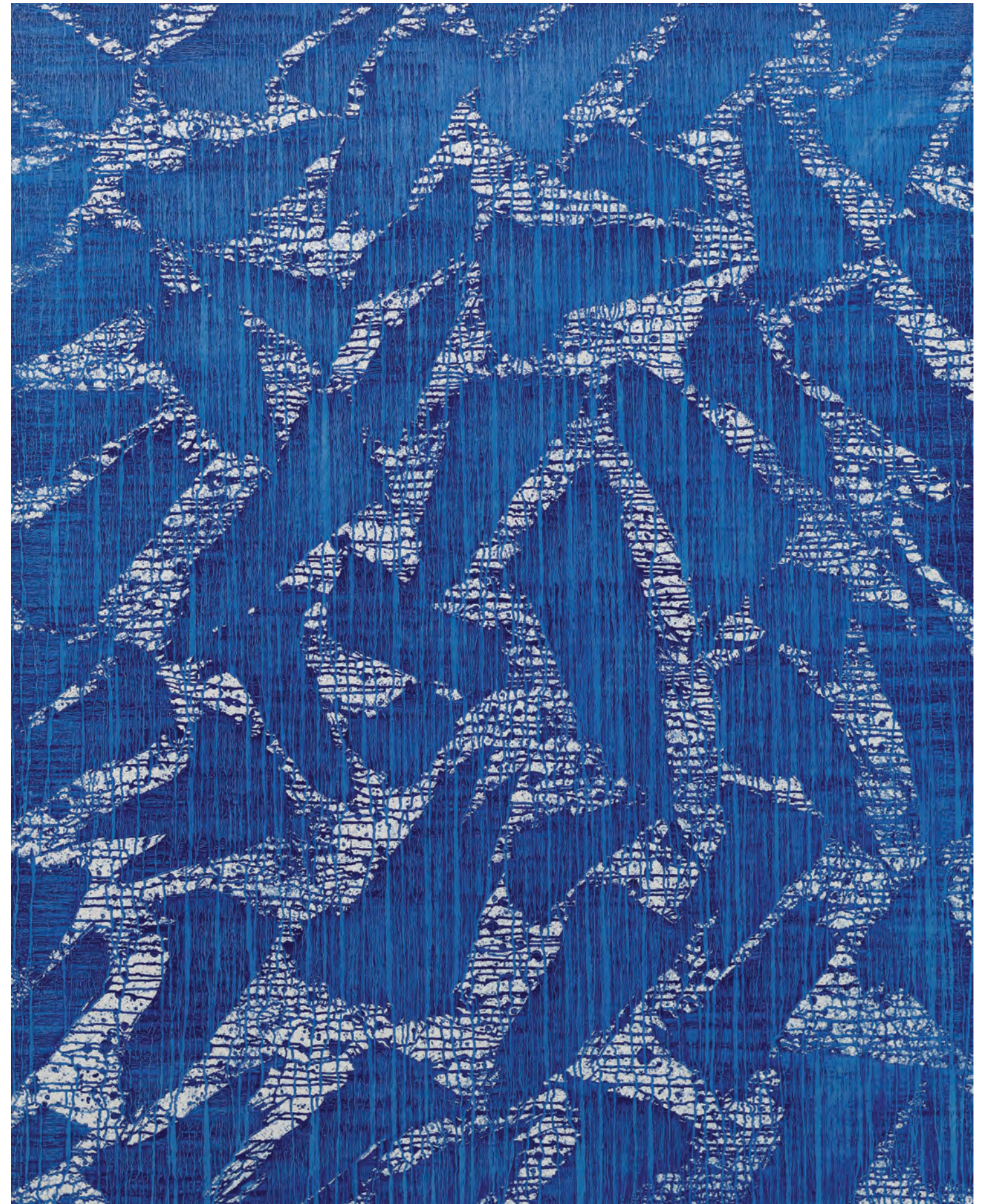
130 x 130 cm - 51.2 x 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

Histoire de bleu (161108)  
블루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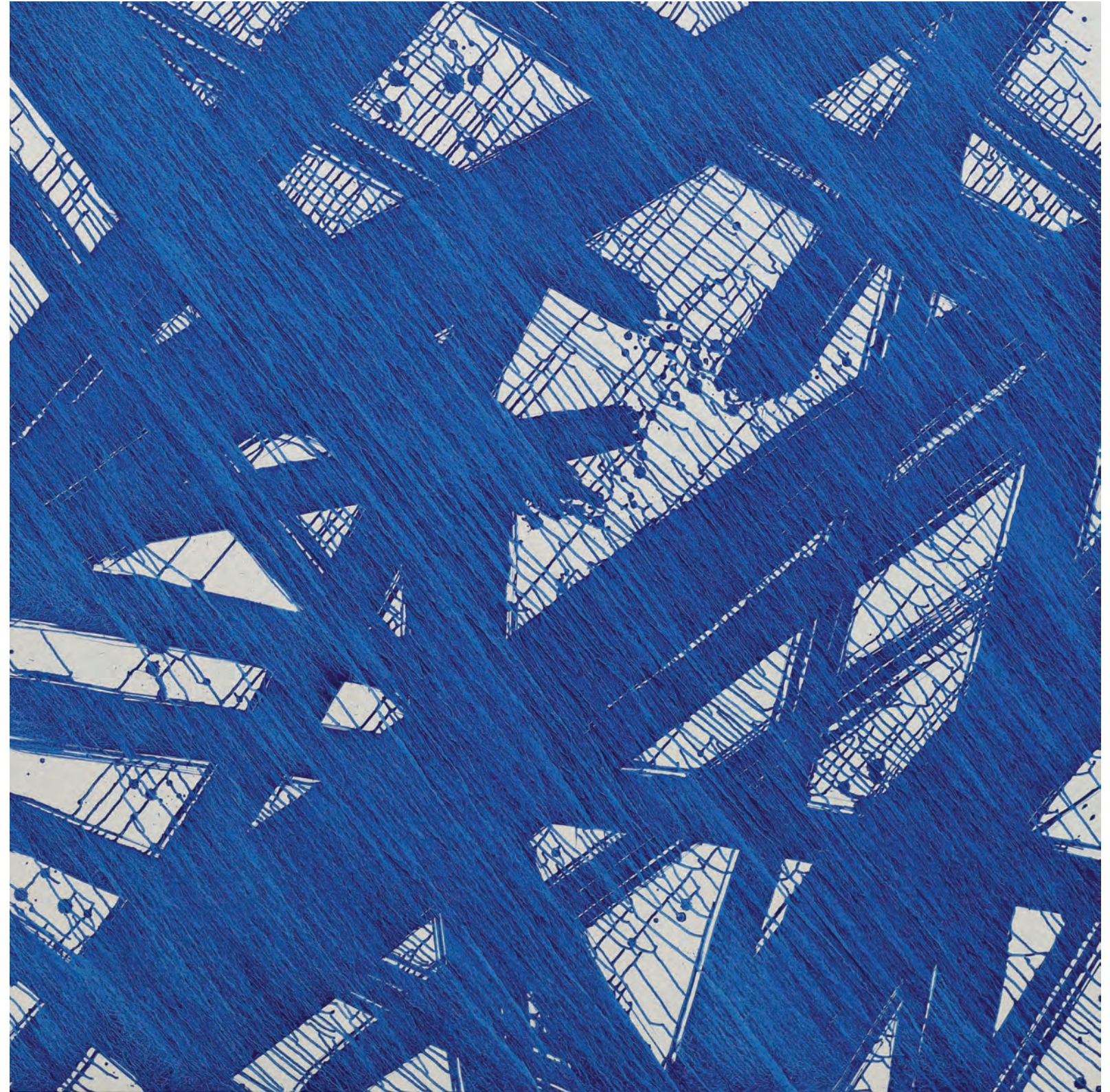
2016

200 x 160 cm - 78.7 x 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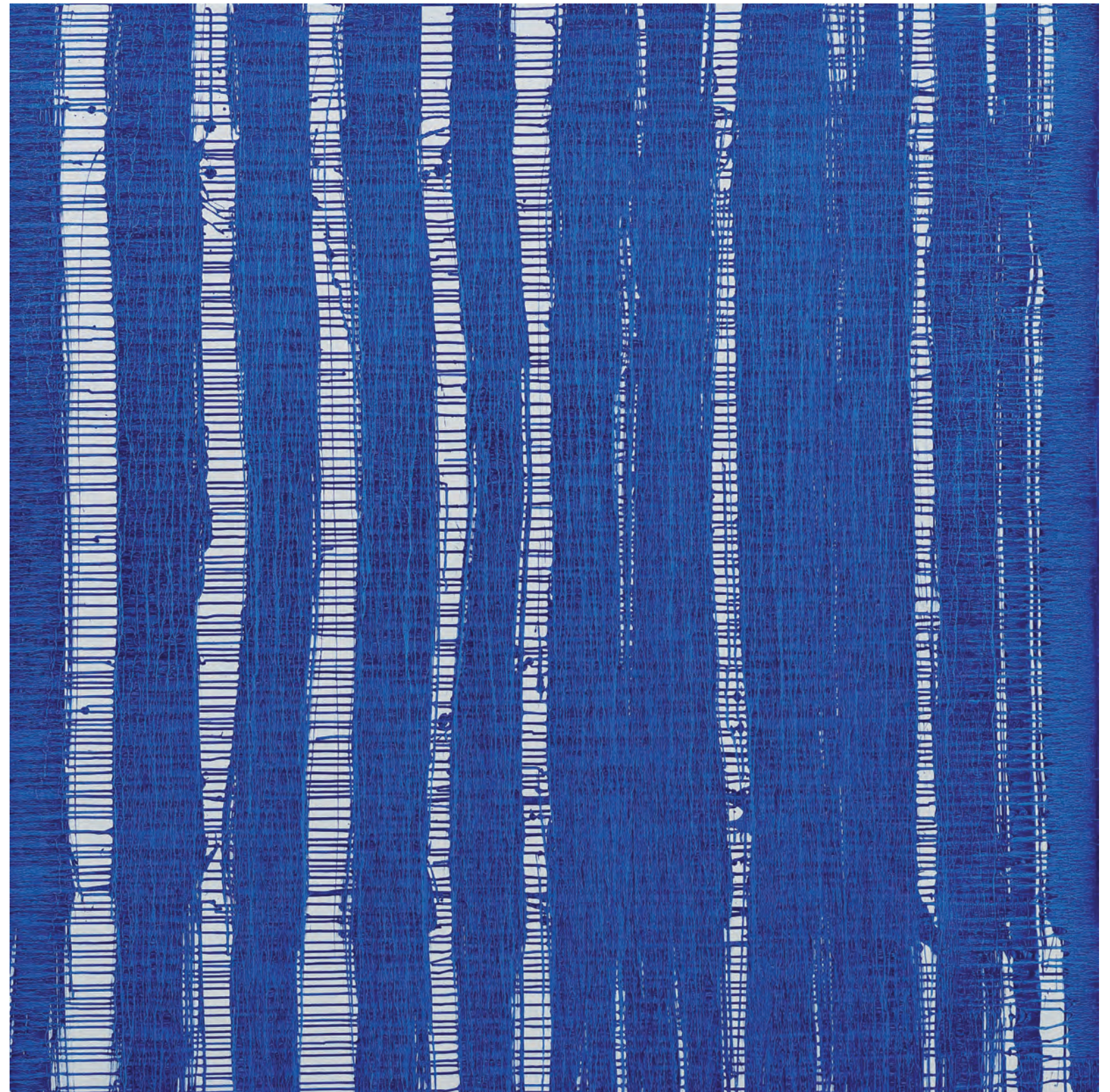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61221)  
블루의 역사  
2016

160x160 cm - 63x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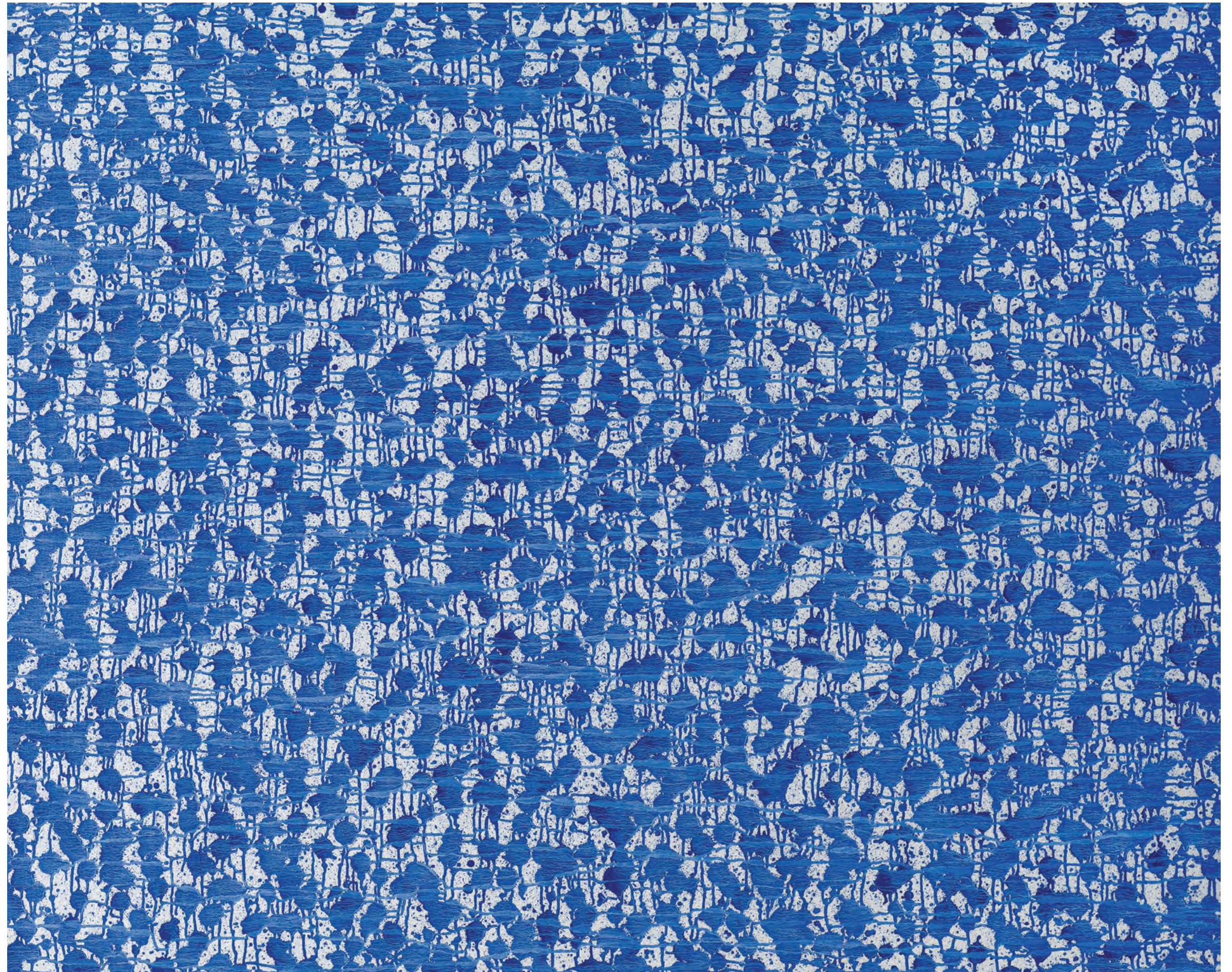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61222)  
블루의 역사  
2016

160x160 cm - 63x63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70116)  
블루의 역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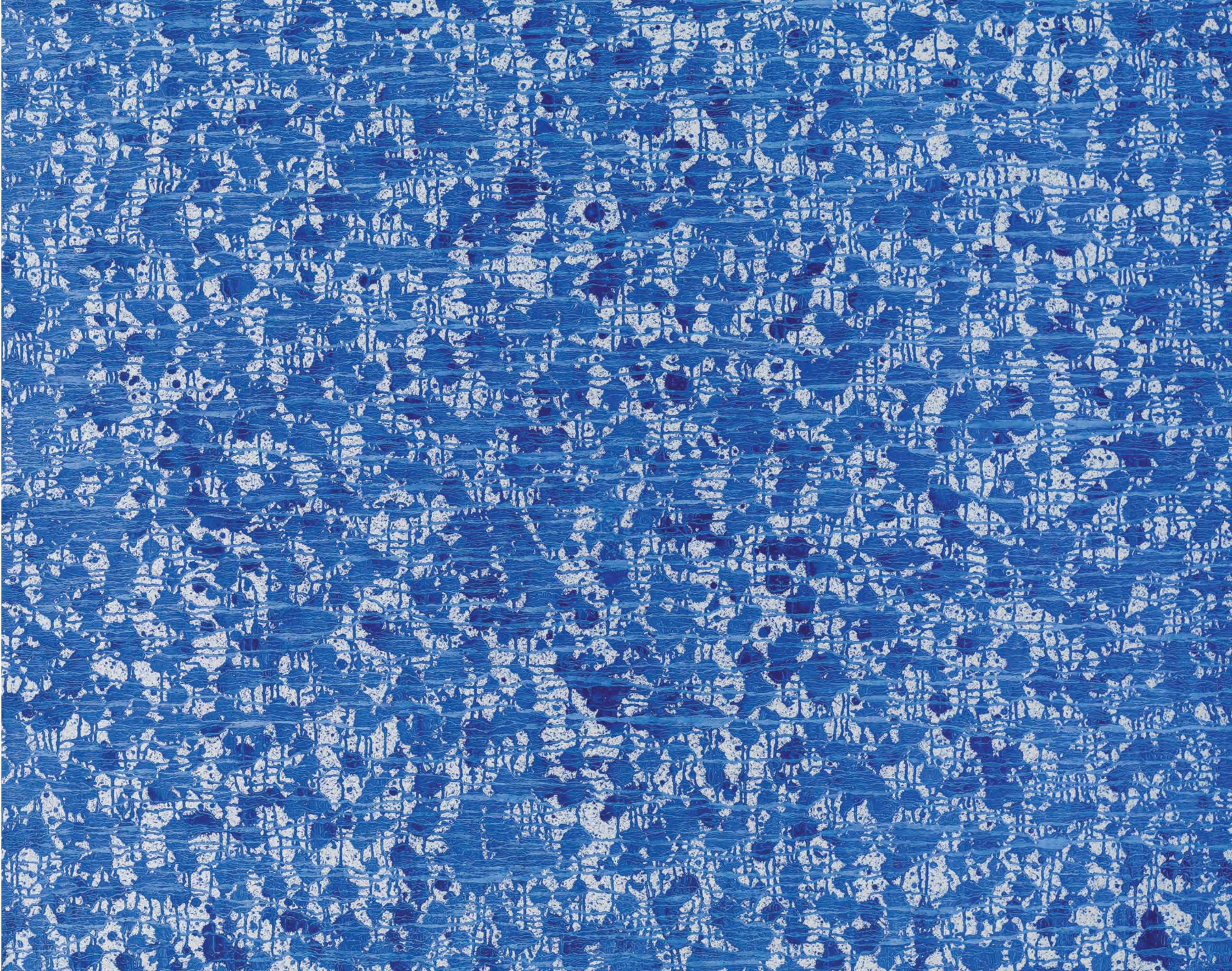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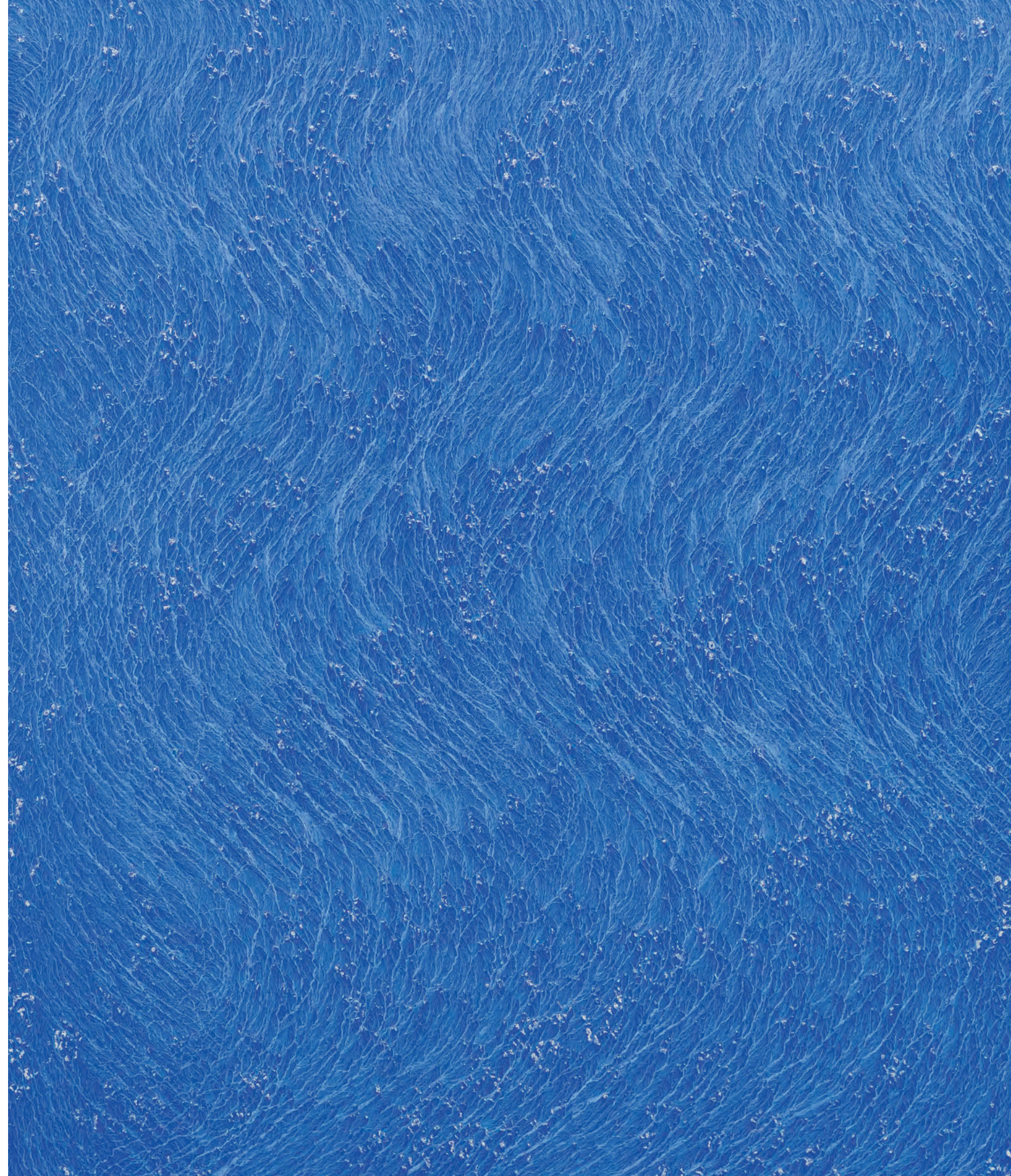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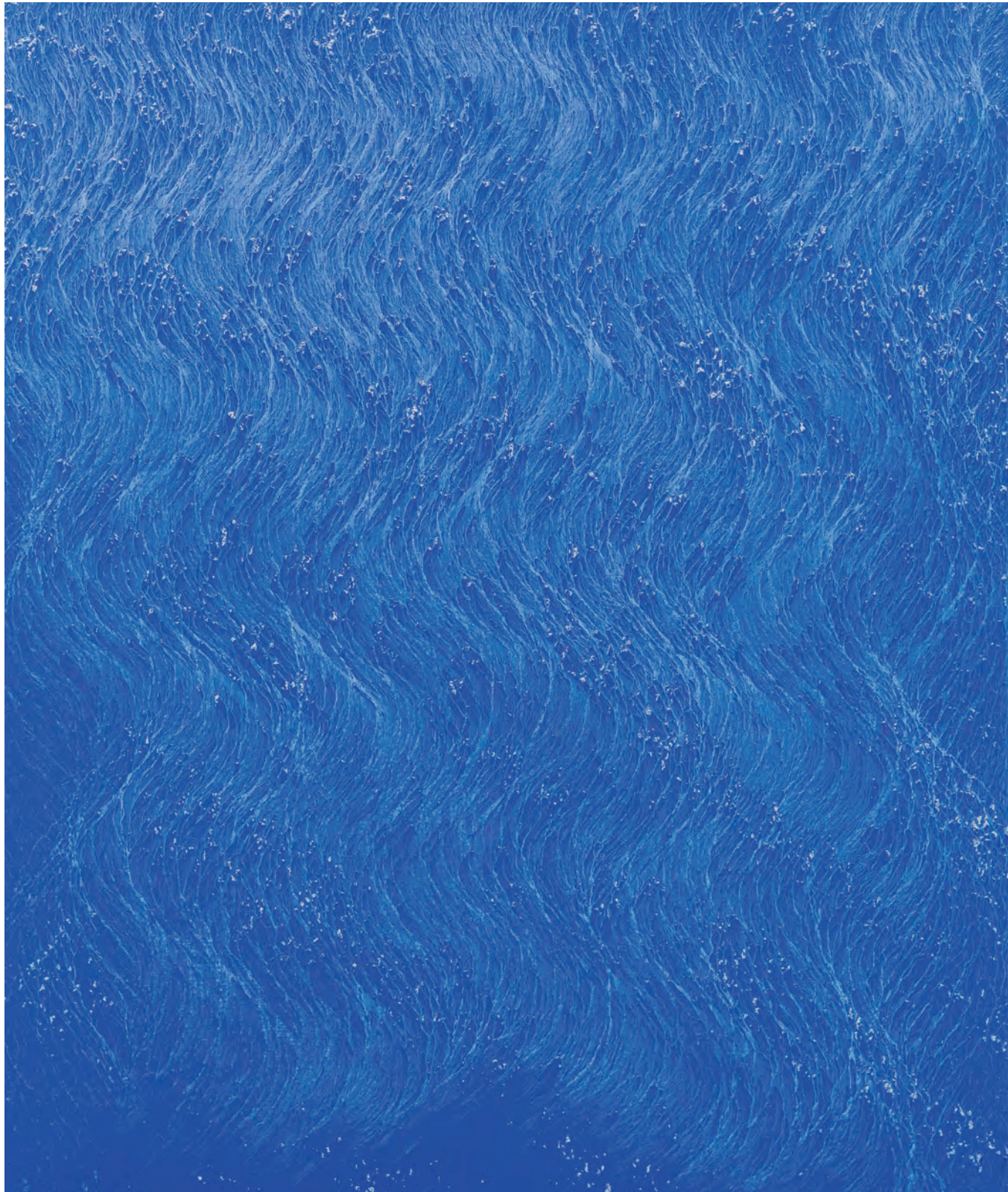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15)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LEFT

Histoire de bleu (170107)  
블루의 역사

2017

162x130 cm - 63.8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RIGHT

Histoire de bleu (170108)  
블루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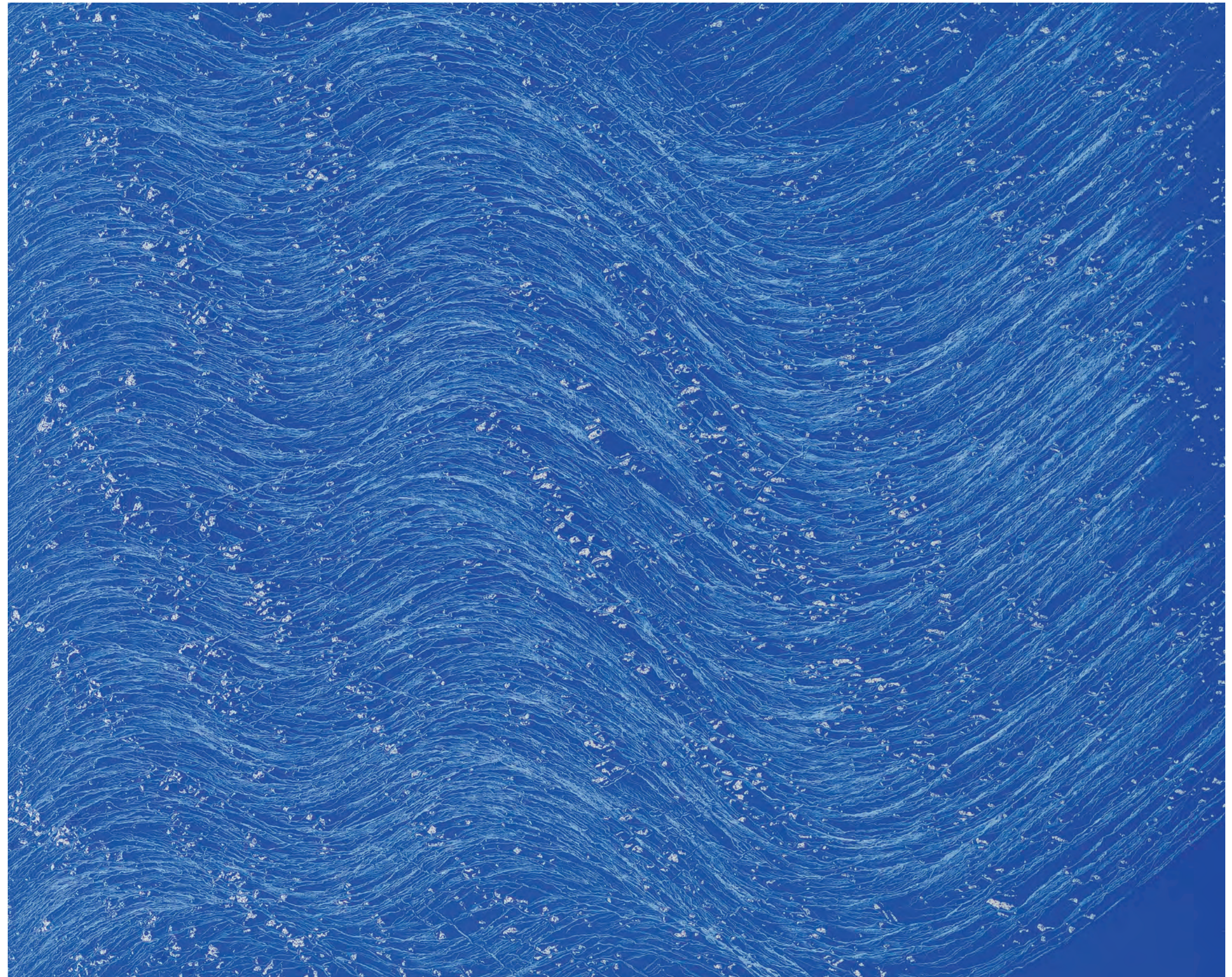
2017

162x130 cm - 63.8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 Histoire de bleu (170109)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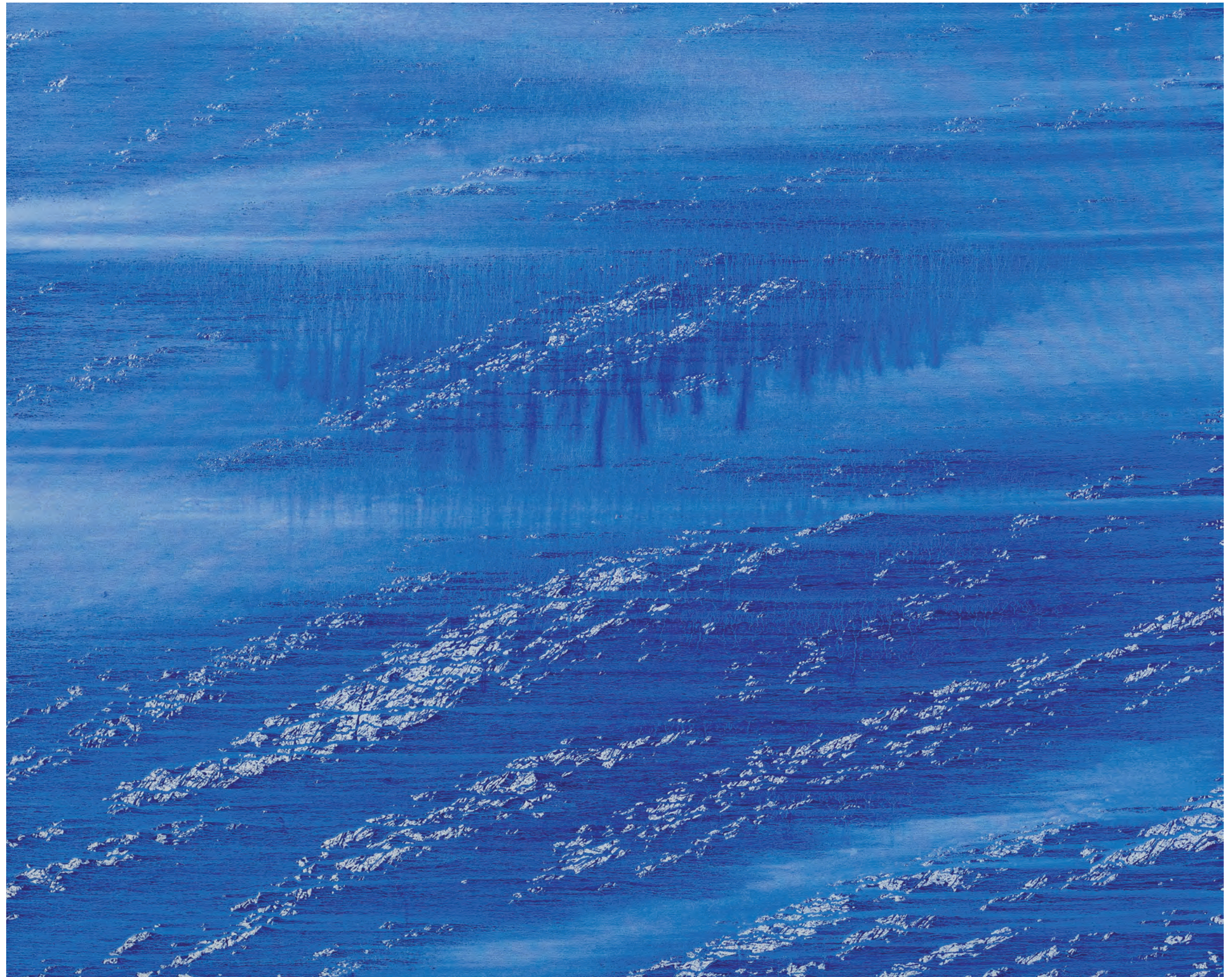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10)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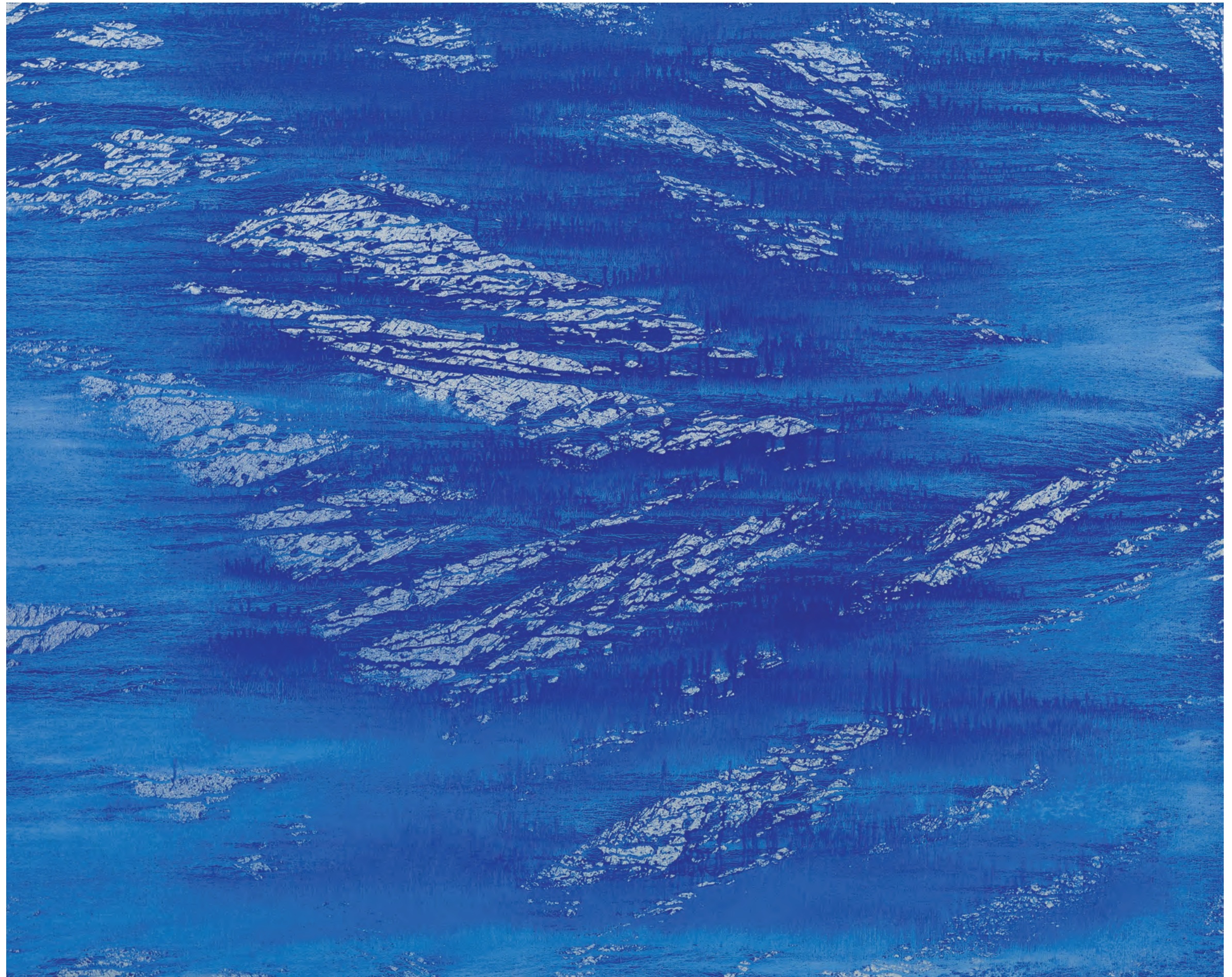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01)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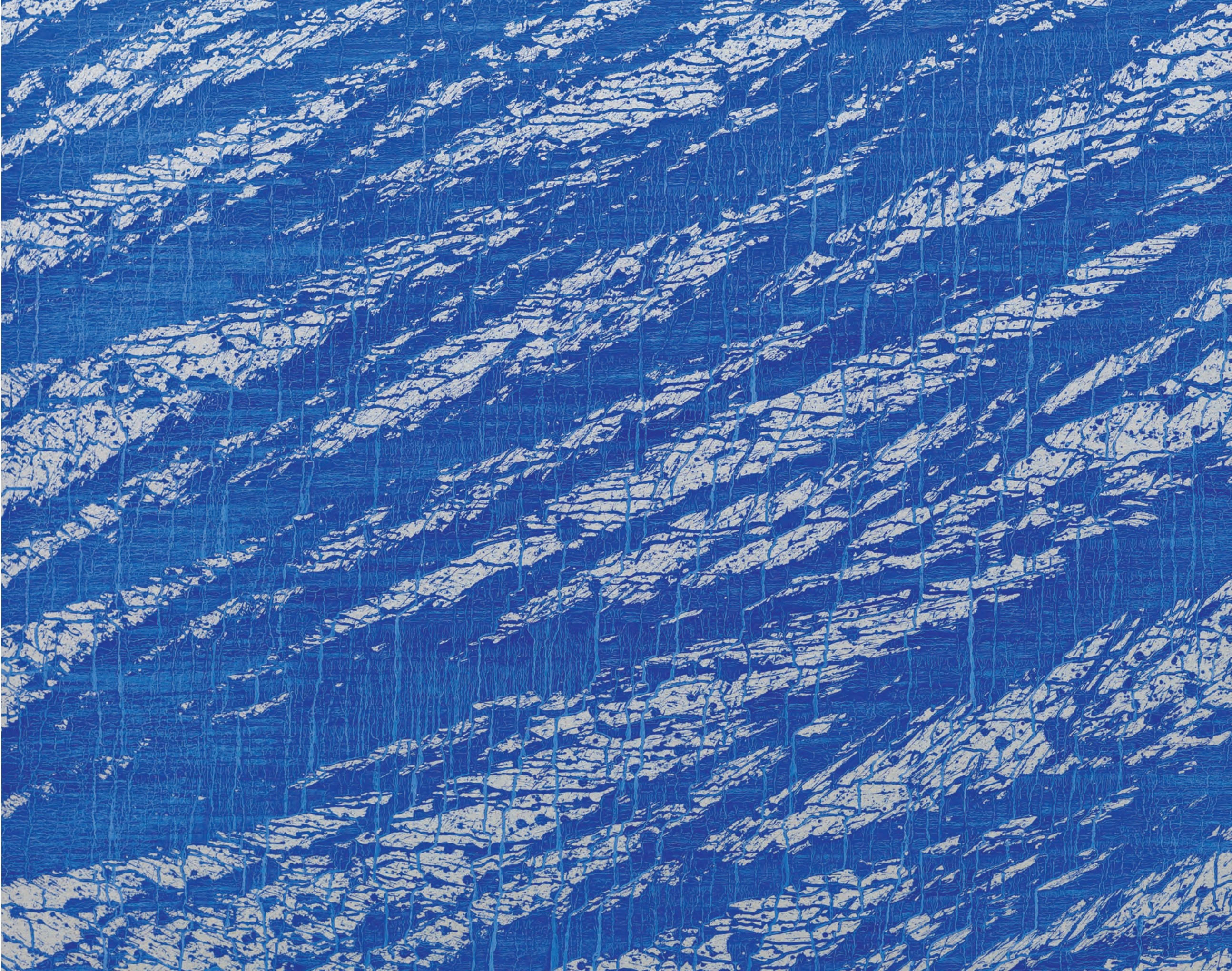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02)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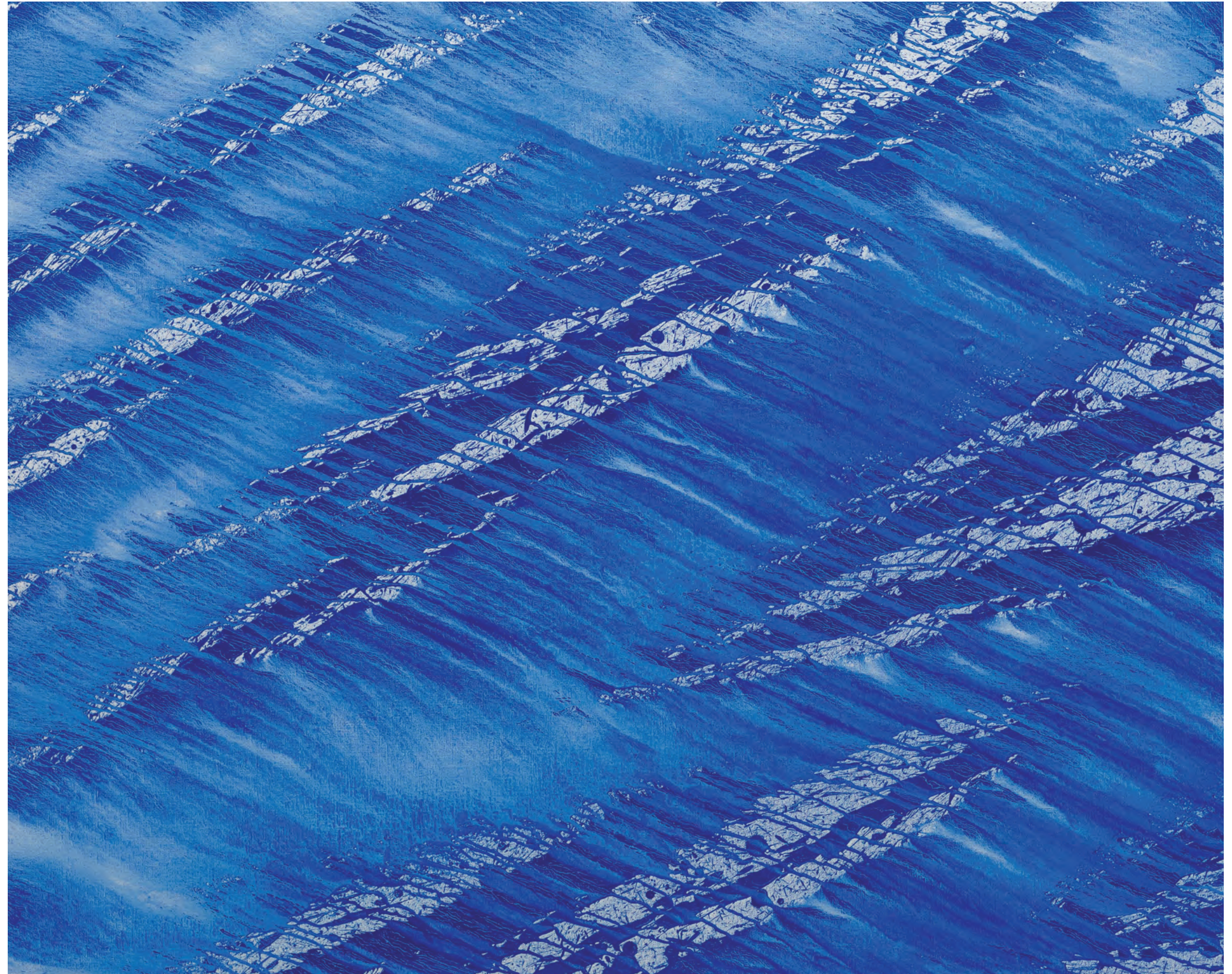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03)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70104)  
블루의 역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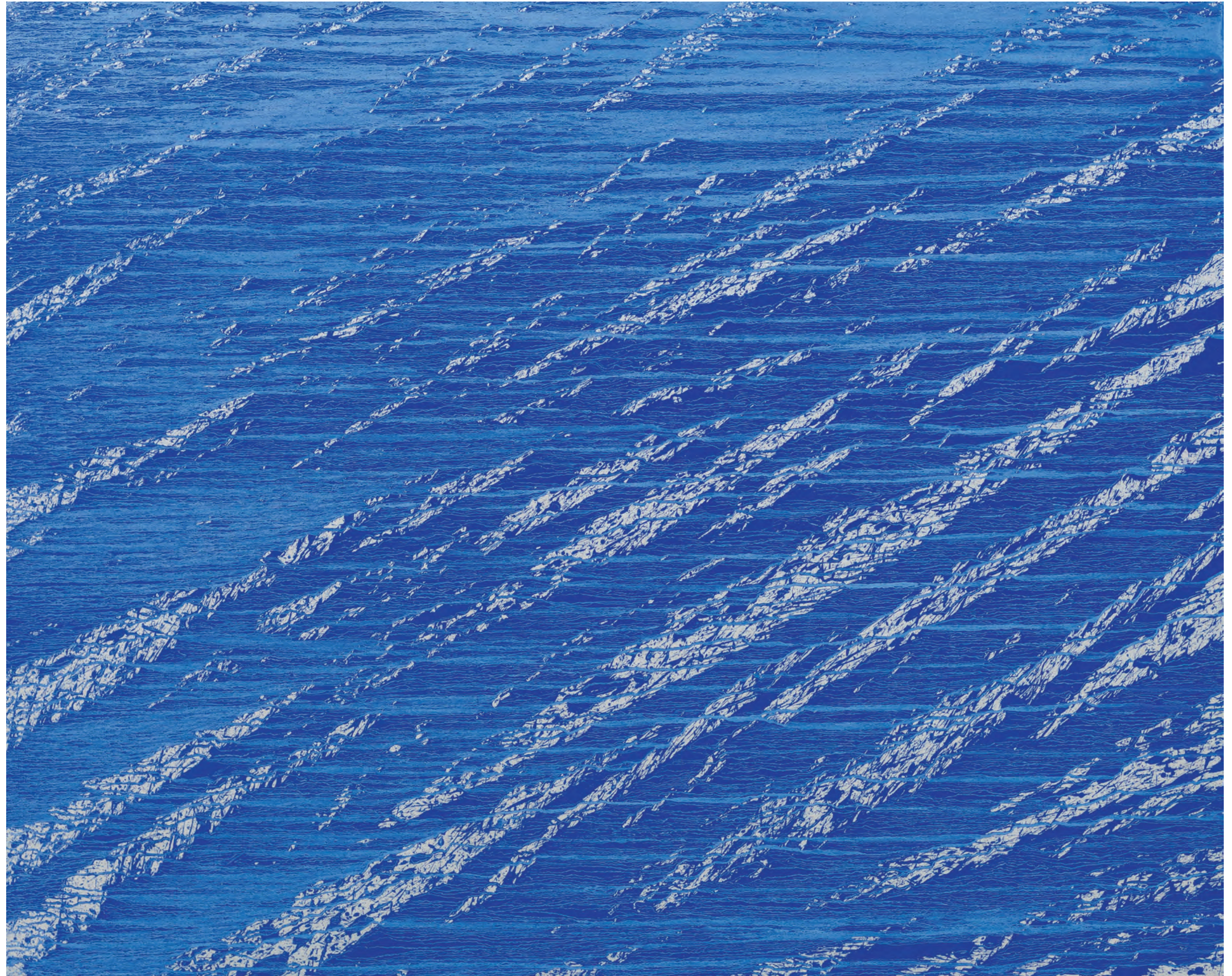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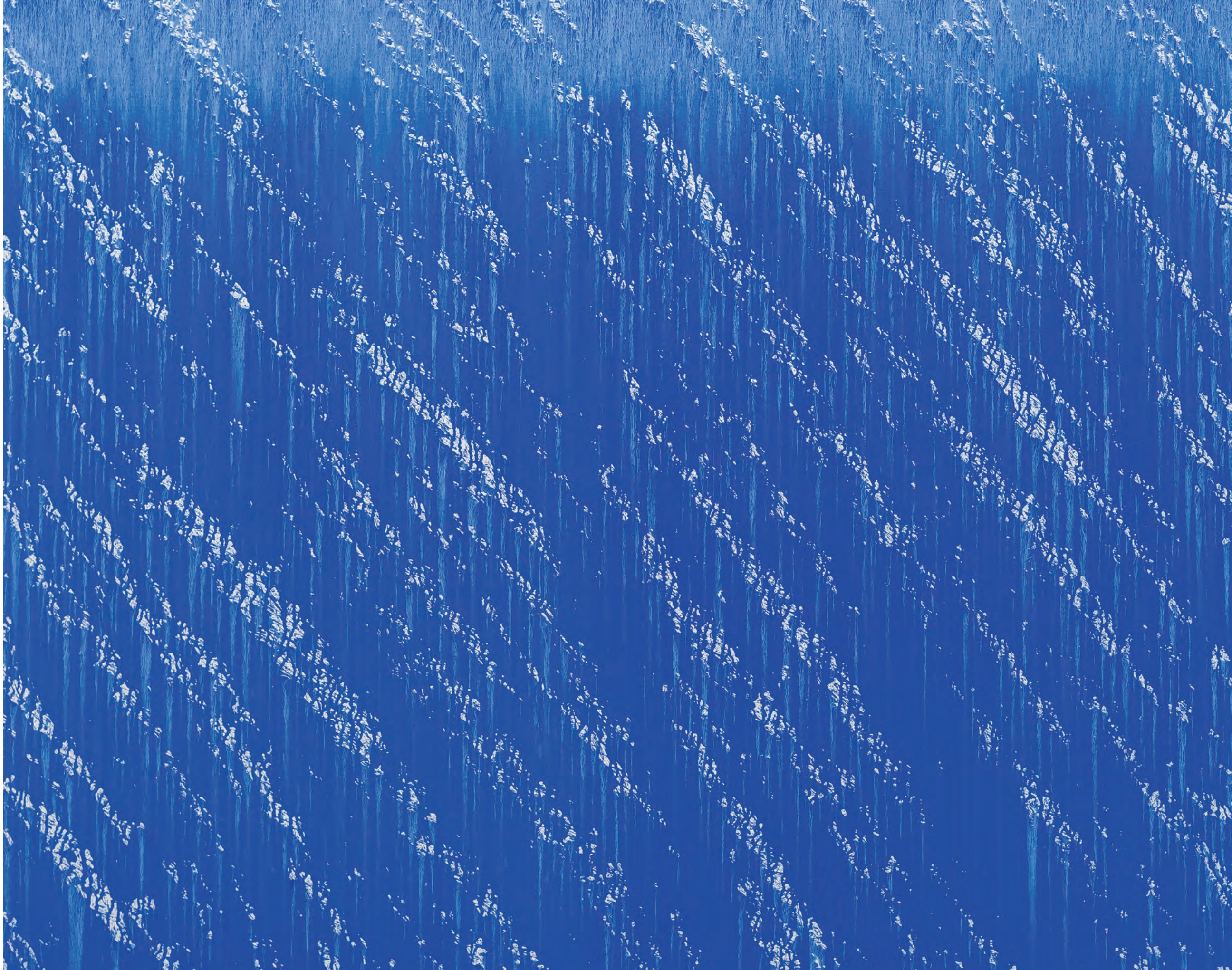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05)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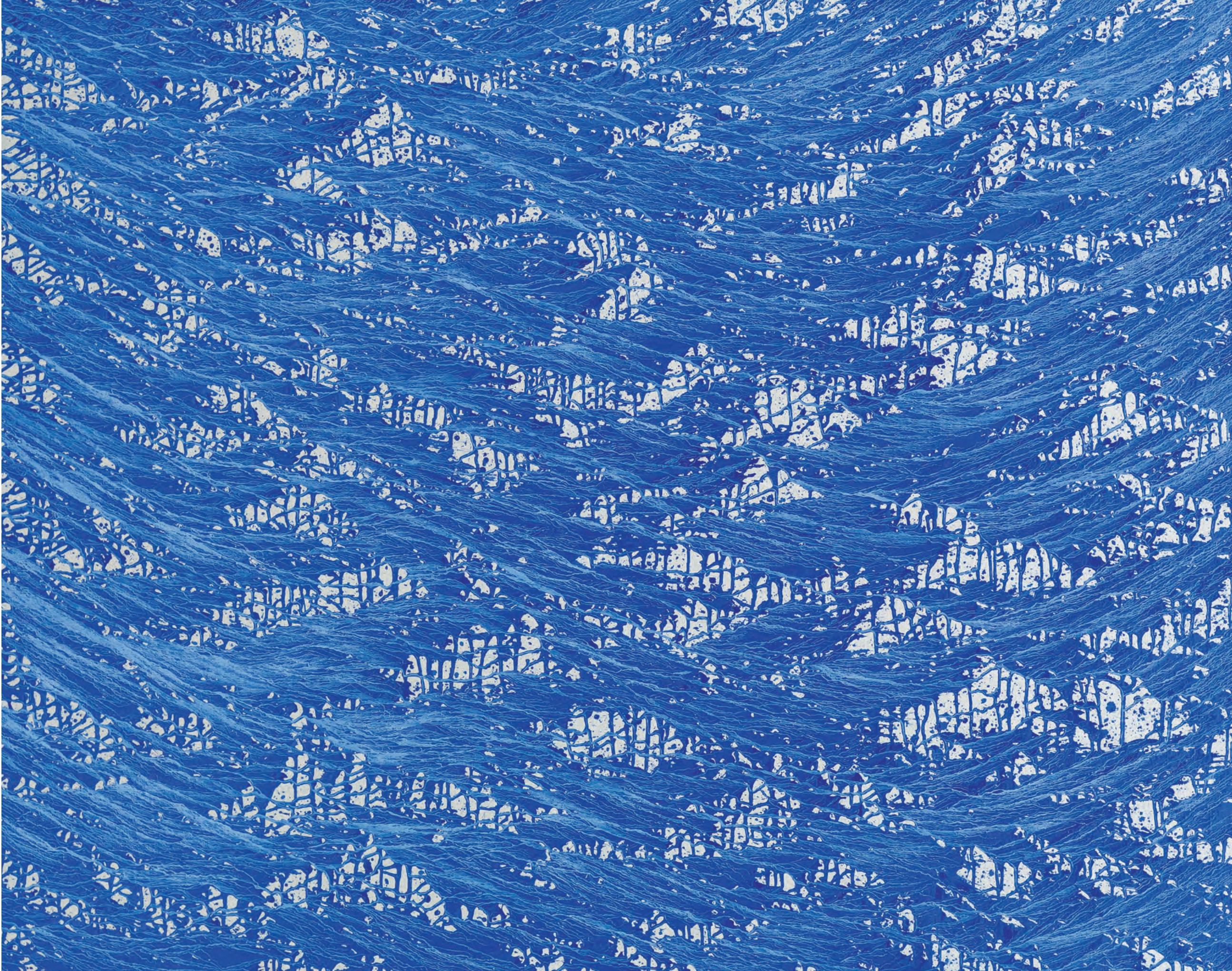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06)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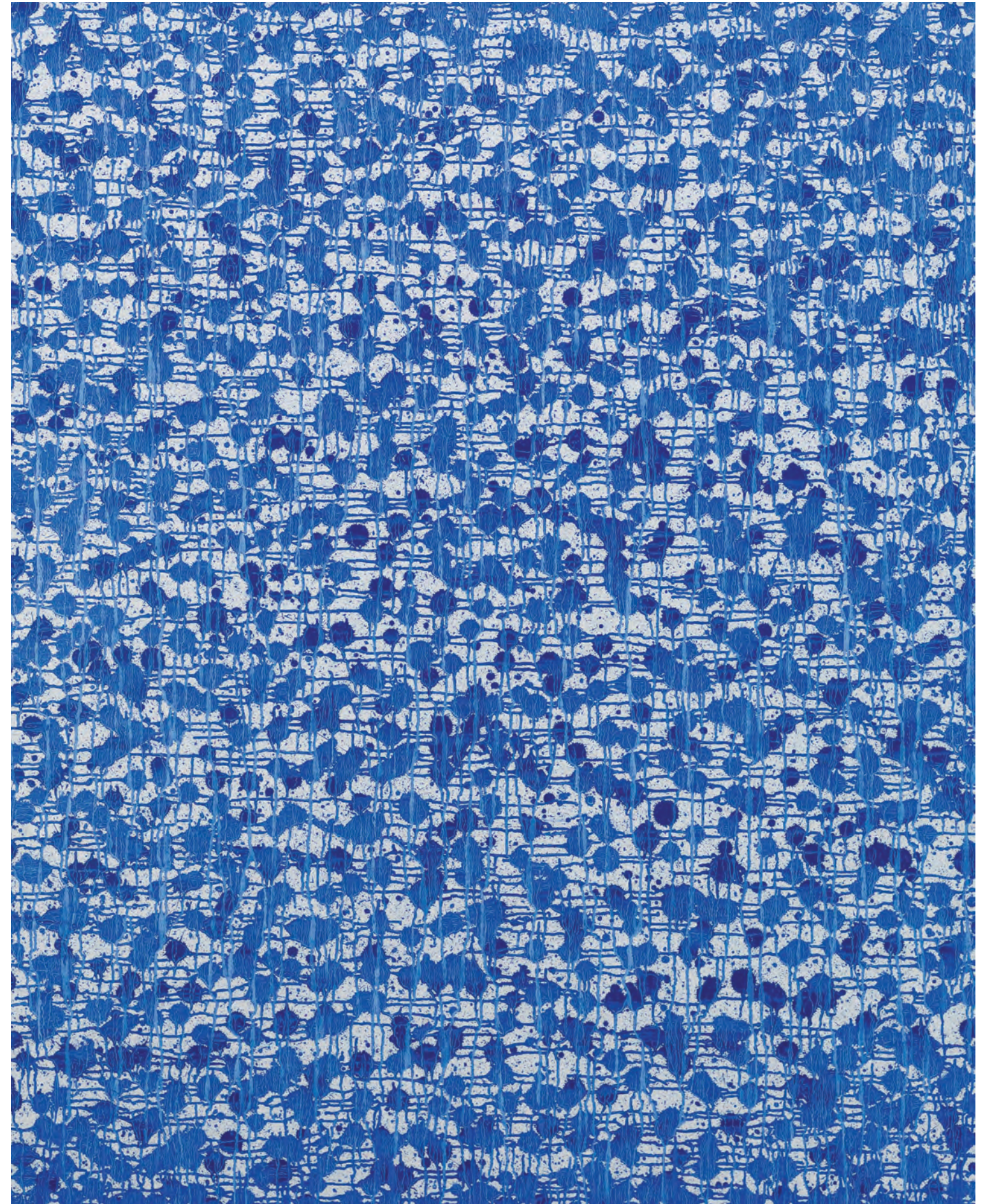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11)  
블루의 역사  
2017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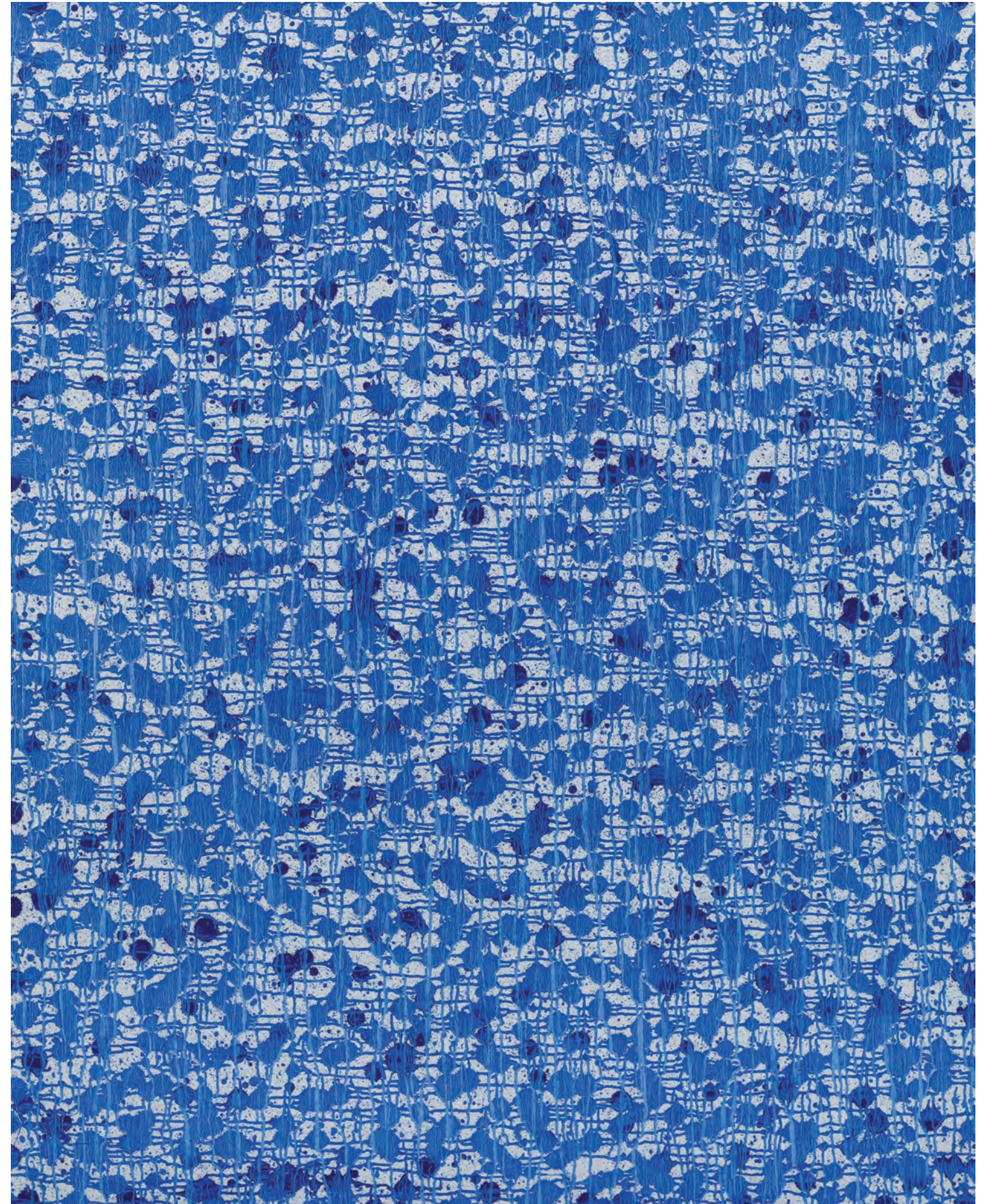
Histoire de bleu (170113)  
블루의 역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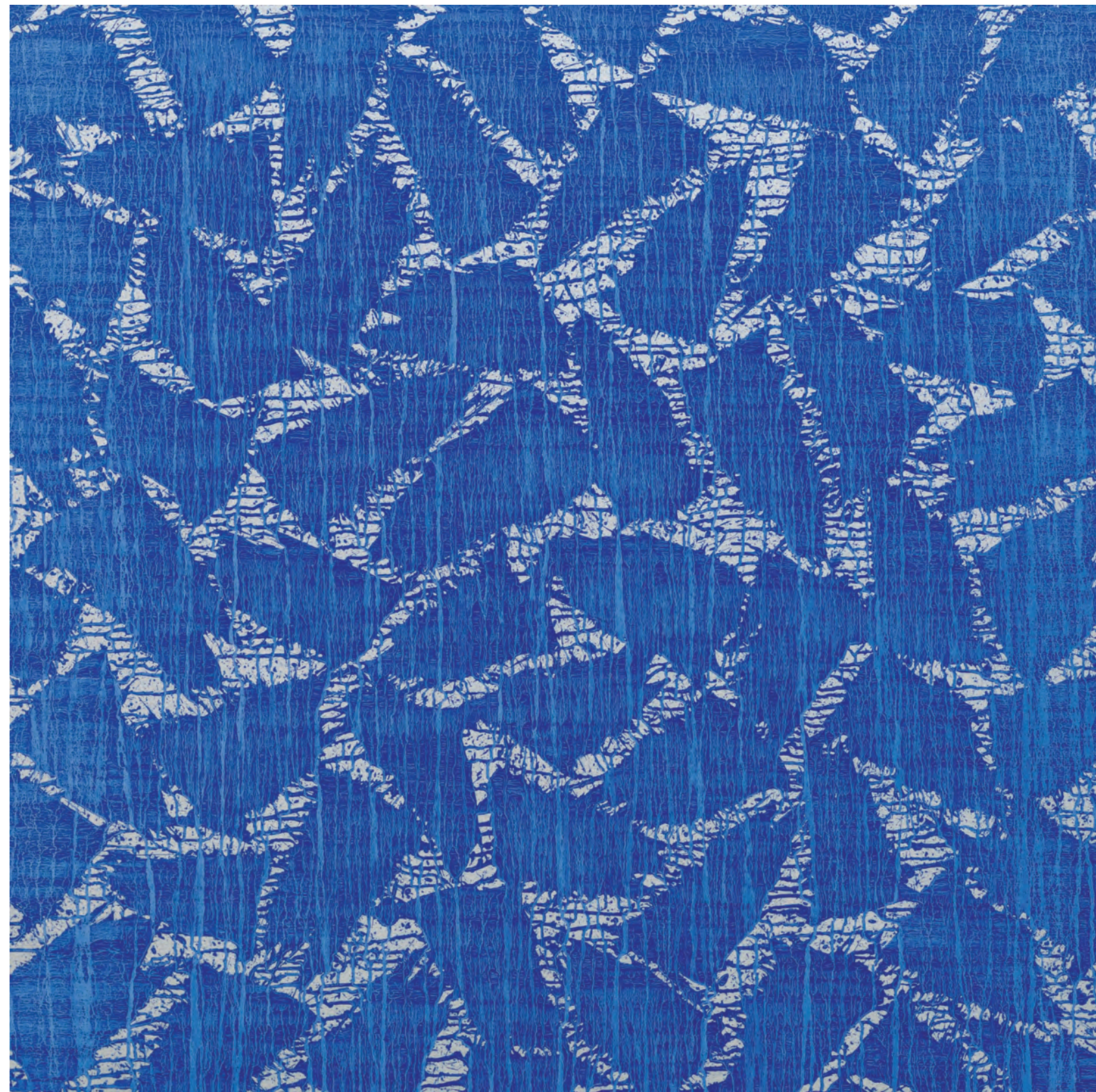
130x162 cm - 51.2x63.8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Histoire de bleu (170114)  
블루의 역사  
2017

162x130 cm - 63.8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LEFT

Histoire de bleu (160111)  
블루의 역사

2016

130x130 cm - 51.2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PREVIOUS PAGES-RIGHT

Histoire de bleu (160113)  
블루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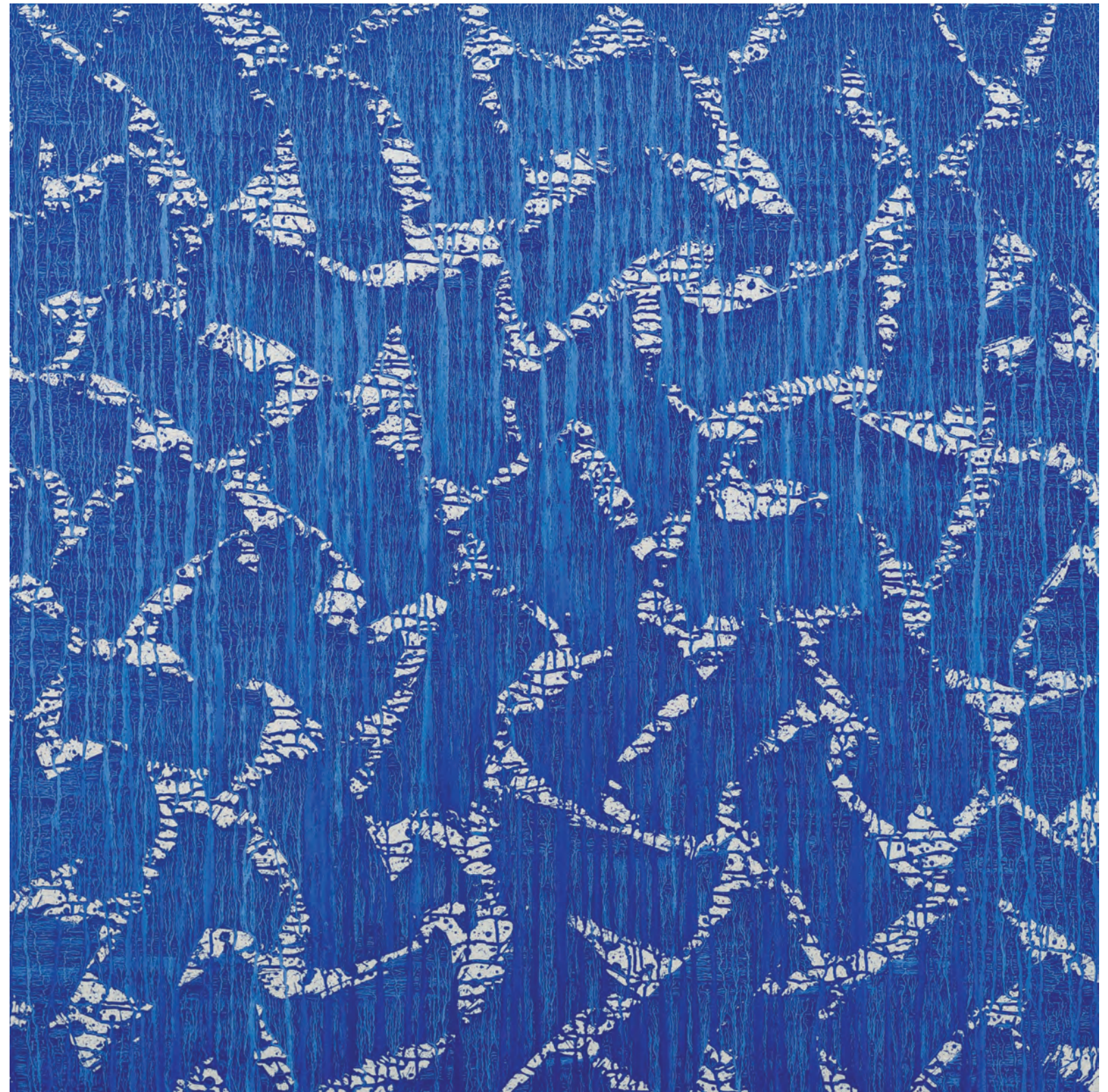
2016

130x130 cm - 51.2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  
Histoire de bleu (160114)  
블루의 역사

2016

130x130 cm - 51.2x51.2 in  
*Natural pigments on canvas*





# CHAE Sung-Pil

Born in 1972, Jindo, Korea

- 2017 Doctoral program in Plastic Arts, Université Paris 1 - Panthéon-Sorbonne, Paris, France
- 2005 Master of Advanced Studies in Plastic Arts, Université Rennes 2, Rennes, France
- 2003 M.A. in Oriental Painting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98 B.A. in Oriental Painting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OLO EXHIBITIONS

- 2017 Histoire de bleu, Opera Gallery, Seoul, Korea
- 2015 Gallery Red Zone Art, Geneva, Switzerland  
Opera Gallery, Dubai, UAE  
Gallery CC, Seoul, Korea  
Galerie Baudoin Lebon, Paris, France
- 2014 Galerie Shchukin, Paris, France  
Galerie Caron Bedout, Villeneuve-sur-Yonne, France
- 2011 Young-Eun Museum, Kwang-Ju, Korea
- 2010 Galerie Christine Park, Paris, France  
Gallery 89, Paris, France
- 2009 Gallery Sejul, Seoul, Korea
- 2008 Galerie Aroa, Neuilly-sur-Seine, France
- 2007 Galerie Brasilia, Paris, France  
Galerie Saphir, Chevreuse, France

## GROUP EXHIBITIONS

- 2017 BRAFA, Brussels, Belgium  
Plein et Vide, Kyobo Art space, Seoul, Korea
- 2016 Art Paris, Paris, France  
Art Busan, Busan, Korea  
'Reminiscing on past time' YoungEun Museum, Kwangju, Korea  
KIAF, Seoul, Korea  
CHAE Sung-Pil & Lee JaeSam, Gallery Grimson, Seoul, Korea
- 2015 Art Paris, Paris, France  
Art15 London, London, UK  
Art Istanbul, Istanbul, Turkey  
Art Busan, Busan, Korea  
KIAF, Seoul, Korea  
Art Elysées, Paris, France  
'SEOUL PARIS SEOUL', Cernuschi Museum, Paris, France  
SAUNAMU,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 2014 London Art fair, London, UK  
Art Karlsruhe, Karlsruhe, Germany  
Art Paris, Paris, France  
Busan Art Show, Busan, Korea  
Gallery Superior, Seoul, Korea





## GROUP EXHIBITIONS

- 2013 Opera Gallery, Singapore  
 Opera Gallery, Dubai, UAE  
 Opera Gallery, Hong Kong  
 Opera Gallery, Seoul, Korea  
 Opera Gallery, Paris, France  
 Opera Gallery, London, UK  
 Opera Gallery, Geneva, Switzerland  
 Opera Gallery, Monaco  
 Galerie 89, Paris, France  
 Art Paris, Paris, France  
 KIAF, Seoul, Korea  
 DeaGu Art Fair, DaeGu, Korea
- 2012 Korea tomorrow,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Opera Gallery, Seoul, Korea  
 Sonamu, Ara gallery, Seoul, Korea  
 Sonamu, Galerie 89, Paris, Korea  
 DeaGu Art Fair, DaeGu, Korea  
 Doors Hotel Art Fair, Seoul, Korea  
 Monochrome in Korea, Gallery Dorothea van der Koelen, Mainz, Germany  
 The Rite of Spring, Galerie Maubert, Paris, France
- 2011 KIAF, Seoul, Korea  
 Galerie Maubert, Paris, France  
 Galerie Aroa, Neuilly-sur-Seine, France
- 2010 Miami Scope, Miami, USA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Seoul, Korea  
 Korea Gallery Exhibition, Daegu, Korea
- 2009 China International Gallery Exhibition, Beijing, China  
 Chicago Art Fair, Chicago, USA  
 KIAF, Seoul, Korea  
 Art Kwangju, Kwangju, Korea
- 2008 Chicago Art Fair, Chicago, USA  
 KIAF, Seoul, Korea  
 ART Shanghai, Shanghai, China  
 Daegu Art Fair, Daegu, Korea
- 2005-2006 International Art Fair Mac2000, Paris, France

**Coordinators**

Aurélie Heuzard,  
Jessica Jungmin Kim,  
Annabel Decoust

**Authors**

David Rosenberg,  
Haesung Chung

**Translator**

Amanda McLane

**Photographer**

Ki-Hyoung TAK

**Designer**

Willie Kaminski

**Printer**

Hyunjin Creative

OPERA GALLERY

1FL. SB Tower, 318 Dosan-daero Gangnam-gu,  
Seoul 06054, Korea

T. + 82 (0)2 3446 0070  
seoul@operagallery.com  
operagallery.com